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9. No. 2, 1998

神經精神科 疾患과 聯關된 醫案의 硏究(Ⅱ)
中國 淸 時代 醫案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神經精神科敎室

權保亨* · 具炳壽**

Ⅰ. 緖 論

醫案이란 醫師의 病證論治를 記錄한 것으로 病案이라고도 한다. 그 內容은 症狀, 辨證, 立法, 處方, 用藥에 關한 事項 뿐 만 아니라, 患者의 姓名, 性別, 年齡, 職業 等까지 包括하고 있으며, 西漢의 名醫 淳于意가 自身이 治療한 25例의 醫案을 記載했는데, 당시에는 이를 診籍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최초의 醫案이 되었다[1].

中國 淸 時代 醫學의 特徵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淸代醫學은 金元四大家의 流派를 繼承한 明代를 主로 祖述하면서 다시 漢 또는 唐·宋의 學說을 主宗으로 받드는 流派도 出現하였으며, 혹은 歷代의 學說을 追從치 않고 스스로의 學說을 세우고자 한 流派도 存在하였다. 또한 西洋醫學이 天主敎의 傳來와 함께 들어와 일부 醫家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이 解剖學의 發展을 가져와 前時代까지 人體의 組織 및 臟腑의 機能을 설명할 때 ≪黃帝內經≫에 根本을 두었던 것에 대해 變化를 가져왔고, 腦에 대한 認識이 進步하기도 하였다[2].

淸代醫學의 가장 큰 特徵이라고 하면, 辨證論治 原則의 確立과 그에 따른 溫病學의 發展이라고 할 수 있다. 溫病學說은 ≪黃帝內經≫, ≪難經≫, ≪傷寒論≫ 等書에서 시작되어 그후 宋, 元, 明, 淸을 거치면서 不斷히 補完되고 發展하여 점차 하나의 독립된 學派가 되면서 그 理論體系도 점차 完備되었다[2].

이상 中國 淸 時代 醫學의 學術的 特徵을 간술하였으며, 이 時期 有名醫家의 醫案은 그 時代의 독특한 醫學理論 뿐 만 아니라 臨床實技까지 記載되어 있어, 逆으로 各 醫家가 活動했던 時代의 學問的 潮流를 類推解釋할 수 있는 動機를 提供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著者는 이미 中國 宋·金元·明 時代 醫案을 中心으로 하는 神經精神科 疾患과 關聯된 醫案의 硏究[3]를 通해, 各 時代는 그 時代 나름의 獨特한 學問的 特徵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學問的 特徵은 各 醫家의 治療方法에 융화되어 이용되었음을 살펴보았다. 今番 中國 淸 時代를 中心으로 하는 醫案의 硏究 역시 前篇에 이은 醫學史의 縱的인 흐름의 後續作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前篇과 마찬가지로 ≪宋元明淸名醫類案≫[4] 을 基準으로, 淸 時代 醫家의 醫案 中 神經精神科 疾患[5]과 關聯된 醫案을 硏究考察하였고, 各 疾患의 例에 따라 現代 西洋醫學的인 見解를 比較 檢討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 若干의 知見을 얻어 報告하는 바이다.

Ⅱ. 本論 및 考察

1. 淸代의 政治·社會的 背景

淸은 1616年 努爾哈赤(누르하치)에 의해 國號를 金이라 하여 처음 생겼고, 1636年 그의 아들 皇太極(Hontaigi)에 의해 淸으로 國號를 改稱하였으며, 1911年 辛亥革命으로 亡해 中華民國이 建立되었다.

淸은 異民族으로 中國에 들어와 다스리기 힘든 漢人을 268年 동안이나 다스렸는데, 그중 聖祖, 世宗, 高宗의 약

* 우석대학교 신경정신과 교실
** 동국대학교 신경정신과 교실

134年間이 전성기로, 그 연호를 따서 康雍乾時代라고도 부른다. 中國 歷史上 王朝를 바뀌게 한 內的인 要因이 있다면 外戚, 權臣, 藩鎭을 들 수 있는데, 滿洲人은 이 네 가지 요소의 위험성을 최저로 감소시켰고, 邊方民族에 대하여도 효과적으로 다스렸다. 그러나 創造力의 缺乏으로 漢人의 文化를 吸收하여, 그 결과 漢人의 성격에 감염되어 漢化를 극단적으로 모두 숭배하게 되었다.

淸의 中國 統治手段은 寬容과 威嚴을 병용한 懷柔와 高壓의 정책이라 할 수 있고, 政治기구는 대체로 明代를 계승하였다. 중앙관청의 핵심은 明代와 같이 內閣인데, 그 곳에 몇 명의 大學士가 있어 정치를 통솔하고 그 밑에 六部가 있어 정치를 나누어 관장하였다.

隆 이후 內亂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그 원인은 政治的 軍事的 腐敗이외에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 첫째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국민생산이 인구증가율을 따르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되면서 叛亂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漢人에 대한 排斥이 격화되면서 漢人들로 하여금 會와 社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明을 부흥시키려는 사상을 심도록 했다는 것이다. 결국 淸은 天地會, 白蓮敎, 太平天國, 戊戌政變, 義和團 사건 등을 거쳐 辛亥革命으로 敗亡하게 되었다.

2. 淸代醫學의 學術的 特徵

淸代醫學은 金元四大家의 流派를 繼承한 明代를 주로 祖述하면서 그 중에 다시 秦, 漢 또는 唐宋의 學說을 主宗으로 받드는 流派도 出現하였으며, 혹은 歷代의 諸說을 追從하지 않고 스스로의 學說을 세우고자 한 流派도 있었다.

淸代醫學의 特徵은 溫病學의 發展이라 하겠지만, 證據를 要求하고 空談을 반대하는 淸初 考證學의 영향을 받아 醫學에서도 醫學經典 本來面目을 窮究하여, 金元以來 各家의 學說을 벗어나 內經이나 難經에 대해 註釋을 달고 內容을 整理하기도 하였다.

한편 溫病學說이 形成된 이후에 傷寒과 溫病에 대한 爭論이 있었다. 즉 傷寒派들은 溫病과 傷寒은 一類이며, 仲景의 傷寒論에 이미 溫病이 包括되어 있으므로 다시 傷寒論의 理法方藥만 잘 알면 一切의 溫病도 治療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반면 溫病派들은 溫病과 傷寒을 서로 다른 疾病이라 主張하고, 아울러 古代에는 傷寒이 많고 溫病이 적었으므로 仲景傷寒論에는 溫病을 상세히 言及하지 않았으나, 近世에는 溫病이 많고 傷寒이 적기 때문에 傷寒의 治法을 쓸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또한 天主敎와 함께 傳來된 西洋醫學의 영향으로, 黃帝內經으로부터 19世紀初에 이르는 若 2千年 동안 별다른 發展이 없었던 解剖學의 發展이 있었다.

3. 各 醫家의 醫案解說

3.1. 徐洄溪 醫案

徐大椿의 原名은 大業이고 字는 靈胎이며 自號를 洄溪老人이라 하였다. 주요 著作으로는 難經經釋, 神農本草經百種錄, 醫學源流論, 傷寒類方, 蘭臺軌範, 醫貫砭, 愼疾芻言 등이 있다.

徐靈胎의 醫學思想은 保守的이고 復古的인 경향이 있어, 內經, 傷寒論 및 神農本草經을 推崇했으며, 宋 以後의 醫學에 대해서는 많은 批判을 加하였다.

<遊魂>

@ 原文 : 郡中蔣氏子. 患時證. 身熱不凉. 神昏譫語. 脈無倫次. 余診之曰. 此游魂證也. 雖服藥. 必招其魂. 因訪招魂之法. 有鄰翁謂曰. 我聞虔禱龜神. 則能自言. 父如其言. 病者果言曰. 我因看戲. 小臺倒. 幾被壓受驚. 復往城隍廟中散步. 魂落廟中. 當以肩輿擡我歸. 如言往招. 明日連余再診. 病者又言. 我魂方至房門. 爲父親衝散. 今早魂臥被上. 又爲母親疊被掉落. 今不知所向矣. 咆哮不已. 余慰之曰. 無憂也. 我今還汝. 因用安神鎭魄之藥. 加猪心尖, 辰砂, 絳帛包裹. 懸藥罐中煎服. 戒曰. 服藥得寢. 勿驚醒之. 熟寐卽神合. 果一齋而安. 調理而愈. 問之俱不知也.

@ 解說 : 마을에 蔣氏의 아들이 身熱不凉, 神昏譫語, 脈無倫次의 증상이 있어 진찰을 하여보니 이는 遊魂證이었다. 비록 藥을 복용하여 치료하더라도 魂을 불러들이는 치료방법을 먼저 써야하므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것을 일러주었다.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하자 病

者가 과연 그 동안의 경과를 말하면서 咆哮를 그치지 않았다. 내가 위로하여 말하면서 安神鎭魄하는 藥에 猪心尖辰砂를 붉은 비단에 싸서 달여 복용하도록 하였다. 주의할 점도 일러주었는데, 藥을 복용하고 잠을 자면 깨우지 말고 熟眠을 취한 즉 神이 合할 것이라고 말하여 주었다. 그렇게 한 결과 한 劑에 편안해지고 調理함에 낳았다. 전에 일을 물어보니 전혀 알지 못하였다.

魂은 七神의 한 종류로 肝에서 藏하고 있으며 隨神往來者 謂之魂이라 하여 魄과 더불어 心의 神明을 輔佐하는 역할을 한다[6]. 遊魂證의 症狀이 身熱不凉, 神昏譫語, 脈無倫次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肝心의 火가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되며, 猪心尖과 辰砂는 性微寒하고 養精神安魂魄 鎭心의 效能이 있다.

<失魂>

@ 原文 : 平湖張振西. 壁鄰失火受驚. 越數日而病發. 無大寒熱. 煩悶不食. 昏倦不寐. 余視之. 頗作寒暄語. 而神不接. 余曰. 此失魂之證. 不但風寒深入. 而神志亦傷. 不能速愈. 亦不可用重劑. 以煎方祛邪. 以丸散安神. 乃可漸復. 時正歲除. 酌與半月之藥而歸. 至新正元宵. 始知身在臥室間. 問前所爲. 俱不知也. 至二月. 身已健. 同其弟元若來謝.

揚州吳運臺夫人. 患消證. 晝夜食粥數十碗. 氣逆火炎. 通夕不寐. 余診之. 六脈細數不倫. 神不淸爽. 余曰. 此似崇脈. 必有他故. 其家未信. 忽一日僕婦晨起入候. 見牀上一女. 盛妝危坐. 以爲夫人也. 諦視則無有. 因以告夫人曰. 此女常臥我牀內. 以此不能成寐. 而煩渴欲飮耳. 服余藥未甚效. 一夕夜將半. 病者大呼曰. 速請三舅爺來. 切不可啓門. 啓門則我魂必走出. 三舅爺者. 卽其弟唐君悔生也. 臥室遼隔. 呼之不能聞. 女僕私啓門邀之. 魂卽隨出. 徧歷廳堂廊廡. 及平昔足未經行者. 遇唐君趨至. 魂堅執其辮. 仍返房. 見己身臥床上. 唐君撫之. 魂遂歸附於身. 問所寓目皆不爽. 細攷所見之女. 乃運臺聘室也. 未成婚而卒. 卒之時. 囑其父母. 謂吳郞必顯貴. 我死. 須懇其血食我. 而葬我於祖墓. 運臺服官後. 未暇辨. 故爲祟. 運臺謂余曰. 君言有爲祟者. 攷果驗. 眞神人也. 將何以慰之. 余曰. 鬼有所歸. 乃不爲厲. 公當迎柩厝墓立位而祀之可也. 運臺依余言以行. 然後服藥有功. 而病根永除矣.

@ 解說 : 平湖의 張振西가 이웃의 失火로 놀랐다. 수일이 지나 病이 났는데, 無大寒熱, 煩悶不食, 昏倦不寐의 증상이 나타났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날씨의 안부를 물으니 말은 하나 정신이 없었다. 이는 失魂證으로 風寒이 깊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神志도 역시 손상된 것이다. 신속히 치유되지 않으며 또한 重劑를 사용할 수 없으니, 湯藥으로 祛邪하고 丸·散藥으로 安神시키면 점차 회복될 수 있다. 때가 연말이라 보름을 복용할 수 있는 藥을 지어 돌려보냈다. 음력 정월 보름날 밤에 이르러 비로소 몸이 방에 누워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전에 한 행동을 물어도 전혀 알지 못했다. 2월에 이르러 몸이 이미 건강해짐에 그 동생 元若과 함께 찾아와 인사를 하였다. 위에서 風寒이 깊이 들어갔다는 말은 傷寒傳變의 의미보다는 八綱辨證의 裏病證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揚州의 吳運臺夫人이 消證으로 晝夜로 粥 數十그릇을 먹고 氣가 逆上하여 火가 치솟고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진찰해 보니 六脈이 細數하고 순서가 없었으며, 정신이 맑지 못했다. 이는 祟脈과 비슷한데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그 가족이 믿지를 못하였다. 하루는 여종이 새벽에 일어나 문안을 갔다가 침상 위에 한 여자가 앉아 화장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어 부인으로 생각하였으나, 자세히 보니 아무도 없었다. 부인에게 알리니, 그 여인은 항상 나의 침상 위에 누워있어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煩渴이 생겨 물을 찾게 된다고 말하였다. 내가 藥을 지어주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저녁 病者가 크게 불러 속히 三舅爺가 오기를 청하였다. 啓門은 절대로 불가하니, 啓門을 하게되면 내 魂이 반드시 빠져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三舅爺는 그 아우 唐君이 悔生한 것이다. 누워 있는 방이 멀어서 부르되 들릴 수 없고, 여자 노비가 열라고 두드리면 魂은 따라 나가 건물 둘레를 두루 돌아다녔다. 예전에 족히 걸어다니지 못한 자였는데, 唐君이 와서 魂의 땋은 머리를 굳게 잡으니 이에 방으로 돌아와 자기 몸이 마루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唐君이 어루만지니 魂이 마침내 몸으로 돌아가 붙었다. 시선이 머무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 물어보니 여인을 보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運臺가 불려왔다. 그녀는 결혼을 못하고 죽었는데, 죽을때 그 부모에게 부탁하기를, 吳郞은 반드시 신분이 높게 될 것이니 내가 죽더

라도 정성을 다해 봉양해주고, 나를 祖墓에 장사지내 달라고 하였었다. 運臺가 관직에 오른 후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고로 祟가 되었다. 運臺가 나에게 君은 祟가 되어 말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나타난 징후를 보게되면 정말 귀신의 소행인 것 같은데 장차 어떻게 위로를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내가 말하기를 鬼는 돌아갈 바가 있으면 화를 입히지 않으니 마땅히 묘에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運臺가 나의 말대로 行한 연후에 藥을 복용하니 효과가 있어 病의 뿌리가 영원히 제거되었다. 邪祟는 氣血極虛, 痰火壅盛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症狀으로 內因과 外因의 구별이 있으며, 外因 중에는 鬼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위의 症狀은 憑依에 해당하는 邪祟症으로 사료된다.

<崇病>

@ 原文 : 同里朱翁元亮. 僑居郡城. 歲初其媳往郡拜賀其舅. 舟過婁門. 見城上蛇王廟. 俗云. 燒香能免生瘡腫. 因往謁焉. 歸卽狂言昏冒. 舌動如蛇. 稱蛇王使二女僕一男僕來迎. 延余診視. 以至寶丹一丸. 遣老嫗灌之. 病者言此係毒藥. 必不可服. 含藥噴嫗. 嫗亦仆不省人事. 舌伸頸轉. 亦作蛇形. 另易一人. 灌藥訖. 病者言一女使被燒死矣. 凡鬼皆以硃砂爲火也. 次日煎藥. 內用鬼箭羽. 病者又言一男. 使又被射死矣. 鬼以鬼箭爲矢也. 從此漸安. 調以消痰安神之品. 月餘而愈. 此亦客忤之類也. 非金石及通靈之藥. 不能奏效.

林家巷周宅看門人之妻縊死. 遇救得甦. 余適寓周氏. 隨衆往看. 急以紫金錠搗爛水灌之而醒. 明日又縊. 亦遇救. 余仍以煎藥灌之. 因詢其求死之故. 則曰. 我患心疼甚. 有老嫗勸我將繩繫頸. 則痛除矣. 故從之. 非求死也. 余曰. 此嫗今安在. 則曰在裏牀. 視之無有. 則曰. 相公來. 已去矣. 余曰. 此縊死鬼. 汝痛亦由彼作祟. 今後若來. 汝卽嚼余藥噴之. 婦依余言. 嫗至曰. 爾口中何物. 欲害我耶. 詈罵而去. 其自述如此. 蓋紫金錠之辟邪. 神效若此.

同學李鳴古. 性誠篤而能文. 八分書爲一時冠. 家貧不得志. 遂得奇疾. 日夜有人罵之. 聞聲而不見其形. 其罵語惡毒不堪. 遂惱恨終日. 不寢不食. 多方曉之不喩也. 其世叔何小山先生甚憐之. 同余往診. 李曰. 我無病. 惟有人罵我耳. 余曰. 此卽病也. 不信. 小山喩之曰. 子之學文人品. 人人欽服. 豈有罵汝之人耶. 李變色泣下曰. 他人勸我猶可. 世叔亦來勸我. 則不情甚矣. 昨日在間壁罵我一日. 卽世叔也. 何今日反來面諛耶. 小山云. 我昨在某處竟日. 安得來此. 且汝間壁是誰家. 我何從入. 愈辨愈疑. 惟垂首浩歎而已. 卒以憂死.

@ 解說 : 같은 마을에 朱元亮이라는 노인이 郡城에 머물고 있었다. 새해에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새해인사를 하러 가던 중 성위의 蛇王廟를 보았다. 속설에 그곳에서 향을 태우면 瘡腫을 免한다고 하여 들렀다가 돌아오니 狂言昏冒하며 혀가 뱀처럼 움직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내가 가서 진찰을 하여보고 至寶丹 1丸을 노파에게 보내 복용토록 하였더니, 病者가 이는 毒藥이라고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입에 머금고 있던 藥을 노파에게 뿜어 노파 역시 쓰러지면서 人事不省이 되었고, 혀는 펴지고 목은 돌아가 마치 뱀과 같은 형상을 지었다. 다른 사람에게 시켜 약을 먹이니, 病者가 한 여자가 자신을 불태워 죽이려 하였다고 말하였다. 무릇 鬼는 硃砂를 火로 여기기 때문이다. 다음 날 鬼箭羽가 들어간 湯藥을 먹이니, 病者가 한 남자가 자신을 활로 쏴 죽이려 한다고 말하였다. 鬼는 鬼箭을 화살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로써 점차 회복이 되어 消痰安神시키는 약품으로 1개월 남짓 치료해서 병이 나았는데, 이는 客忤의 종류로 金石 및 通靈의 藥이 아니면 效果를 볼 수 없다.

林巷周의 門人의 妻가 목을 매 죽으려 했는데 우연히 그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紫金錠을 갈아서 물과 먹이니 精神이 들었으나 다음 날 또 목을 매었다. 이번에는 湯藥을 服用시켜 구해준 다음 죽으려는 연유를 물으니, 내가 심한 心疼이 있는데 어떤 老嫗가 나에게 목을 매달면 아픔이 없어질 것이라고 해서 따라한 것이지 죽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 老嫗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더니 마루에 있다고 하여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내가 이는 縊死鬼니 당신의 痛症도 역시 그 귀신의 망령된 짓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또 오게 되면 약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뿜을 것을 시켰고 부인은 나의 말대로 행동하였다. 老嫗가 "너의 입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고,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떠났다고 전해주었다. 紫金錠이 邪를 물리치는 것이 이와 같이 神效하다.

同學 李鳴古는 性品이 誠實하고 篤實하였으며 文章이 能했다. 집이 가난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마침내 奇疾을 얻었다. 주야로 욕하는 소리는 들리나 그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 욕이 심해 참을 수 없어 하루종일 괴로워하였고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밥도 먹지 못하였다. 여러 약을 먹었으나 효과가 없어 그 숙부인 小山선생과 함께 왕진을 갔다. 李가 말하기를 "나는 病이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할뿐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病이다."라고 하였으나 믿지 않았다. 小山이 비유하여 말하기를 "자네의 학문과 인품을 사람들마다 존경하고 탄복하는데 어찌 자네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李가 안색이 변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他人이 나에게 욕하는 것은 괜찮으나 世叔이 나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벽 사이에서 하루동안 나를 욕한 것은 世叔입니다. 어찌 오늘 얼굴을 내밀고 아첨을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小山이 "나는 어제 某處에 하루종일 있었는데 어찌 여기에 올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어찌 내가 그 벽속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여 고개를 숙이고 크게 탄식만 하다가 마침내 근심으로써 죽었다.

위의 醫案은 西洋醫學의 解離障碍 중 해리성 황홀경(dissociative trance state) 또는 빙의장애(possession disorder)와 유사한 것으로, 해리장애란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되어, 심적 자극을 준 부분을 선택적으로, 혹은 사건 전체를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지속적인 과거생활을 포함한 전 생애나 그중 일정기간에 대한 기억상실을 보이기도 하는 증상이다[7]. 憑依障碍가 韓醫學에서는 邪祟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征忡>

@ 原文 : 淮安巨商程某母患怔忡. 日服參朮峻補. 病益甚. 聞聲卽暈. 持厚聘邀余. 余以老母有恙. 堅辭不往. 不得已. 來就醫診視. 見二女僕. 從背後抱持. 二女僕偏體敲摩. 呼太太無恐. 吾儕俱在也. 猶驚惕不已. 余以消痰之藥去其涎. 以安神之藥養其血. 以重墜補精之藥納其氣. 稍得寢. 半月餘. 驚恐全失. 開船放炮. 亦不爲動. 船擠喧嚷. 歡然不厭. 蓋心爲火藏. 腎爲水藏. 腎氣挾痰以衝心. 水能剋火. 則心振蕩. 不能自主. 使各安其位. 則不但不相剋. 而且相濟. 自然之理也.

長興趙某. 以經營過勞其心. 患怔忡證. 醫者議論不一. 遠來就余. 余以消痰補心之品治其上. 滋腎納氣之藥治其下. 數日而安. 此與程母病同. 而法稍異. 一則氣體多痰. 誤服補劑. 水溢而火受剋之證. 一則心血虛耗. 相火不寧. 侵犯天君之症. 不得混淆也.

@ 解說 : 淮安의 巨商 程某의 어머니가 怔忡의 증상이 있어 매일 人參 白朮의 峻補藥을 복용하였으나 病이 더욱 甚해져 소리를 들으면 어지러움 증상까지 나타나 나를 招聘하였다. 가서 診察하여 보니, 두 여종이 등뒤에서 잡고 온몸을 안마하였으나 놀람이 그치지 않았다. 내가 消痰의 藥으로 그 涎을 去하고 安神의 藥으로 그 血을 養하며 重墜補精의 藥으로 그 氣를 納하니 조금 잠을 자고 보름이 지나자 驚恐이 모두 없어졌다. 배를 띄워 炮를 쏴도 動하지 않았고, 배에서 떠들썩하게 하였지만 오히려 즐거워하고 싫어하지 않았다. 心은 火藏이 되고 腎은 水藏이 되니, 腎氣가 痰을 挾하고 心을 衝하여 水가 능히 火를 剋한즉 心이 振蕩하여 능히 自主할 수 없으니, 각자 그 자리를 편안히 하면 相剋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相濟하게 되는 것이 自然의 理致이다.

長興의 趙某가 經營에 있어 마음을 과로하여 怔忡證이 있었는데, 醫者의 議論이 여러 가지라 멀리서 나를 찾아왔다. 내가 消痰補心의 약품으로 그 上을 治하고 滋腎納氣의 藥으로 그 下를 治하니 수일 후에 편안해졌다. 이는 程母의 病과 같으나 치료법이 조금 다르다. 하나는 氣體多痰한데 補劑를 誤服하여 水가 넘쳐 火가 剋을 받는 證이고, 하나는 心血虛耗하여 相火가 君火를 犯하는 증상이니 서로 혼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怔忡은 驚悸가 오래도록 治癒되지 않아 발생되는 것으로, 위의 醫案의 내용으로 볼 때, 痰在下 火在上한 것과, 腎은 水臟이고 心은 火臟으로서 心腎의 交齊는 氣機升降出入의 樞軸이 되는데 이의 失調로 인해 발생된 怔忡症으로 사료된다.

3.2. 陳修園 醫案

陳念祖의 字는 修園이며 號는 愼修이다. 主要著書로는

靈素節要淺注, 傷寒論淺注, 金匱要略淺注, 神農本草經讀, 醫學從衆錄, 醫學實在易, 時方妙用 등이 있으며, 後人들이 陳修園醫書十六種을 輯成하였다. 이들 著作內容은 廣範하며 基礎理論부터 臨床에 이르기까지 論及되었고, 통속적으로 알기 쉽게 著述되었다. 醫理에 있어서는 內經, 神農本草經을 기초로 하였고, 傷寒論, 金匱要略을 중심으로 했는데, 특히 張仲景의 學을 推重하였다. 修園의 醫學思想은 徐靈胎와 비슷하여 復古思想이 매우 두드러진다. 그는 宋元以後 醫家에 대해서 輕視할 뿐만 아니라, 徐靈胎가 醫貫砭을 지어 趙獻可를 攻擊한 것처럼, 景岳新方砭을 지어 張景岳의 思想을 攻擊하였다.

<火證>

@ 原文 : 一婦人, 患渾身倦怠, 呵欠, 口乾飮冷. 一月不食, 强之, 食數粒而已, 有以血虛治之者, 有以氣弱治之者, 有知爲火而不知火之源者, 用藥雜亂, 愈治愈病, 自夏至冬病覺微瘥, 逮次年夏, 諸病復作, 甚於先年, 肌消骨露, 家人憂之, 請予診治, 診得三焦脈洪大侵上, 脾肺二脈微沈. 餘部皆和平, 予曰, 此肺火病也, 以梔子湯飮之山梔仁(薑汁侵一宿晒乾炒黑色)研及細末用人蔘二分. 麥冬一錢烏梅二個 冲湯調梔仁末. 二茶匙服. 進二服卽知飢喜食, 旬日, 氣體充實如常.

@ 解說 : 어떤 婦人이 온 몸이 나른하고 하품하며 입이 말라 찬 것을 마시고, 한달 동안 거의 飮食을 먹지 않았다. 血虛로 보고 治하는 者가 있었고 氣弱으로 보고 治하는 者가 있었으니, 이는 火로 인하여 된 것임은 알아도 火의 근원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藥을 난잡하게 써 治療하면 할수록 더욱 病이 되었다. 여름부터 겨울까지 病이 조금 차도가 있는 것 같다가, 이듬해 여름 病이 다시 發生해 전년보다 甚하니 살이 빠져 뼈가 드러나 집안 사람들이 근심하여 나의 진료를 請하였다. 三焦脈이 洪大하여 上을 侵犯하고 脾肺의 二脈은 微沈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和平하였다. 이는 肺火病으로 梔子湯에 梔仁末 두 숟갈을 타서 복용하게 하였더니, 두 번 복용하고 나서 배고픔을 알아 밥을 찾게되고 몇 일이 지나 몸이 다시 예전과 같이 充實해졌다.

梔子는 性寒無毒하고 味는 苦하며, 心 肺 胃 三焦 膀胱에 歸經한다. 去熱毒하여 治目赤熱痛 解心煩氣結 瀉三焦火 治消渴의 效能을 가지고 있으며, 心胸中熱을 去할 때는 仁을 사용한다[8].

修園自記

그 사람이 말하길 荊人이고 賤恚하여 白苦 子時하여 지금에 이르러 二十年이 되었다. 다행이 그대를 만나 나음을 얻었다. 다만 病은 血氣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治血하는 者는 낫지 않고, 治氣하는 者도 또한 낫지 않으니, 그대는 홀로 火로써 治하여 效한 것은 어째서 인가. 내가 말하길 脈에 따르면 左右 三部는 和平하고 無恚하나 오직 右寸이 微沈하고 右尺이 洪大하여 上을 侵犯하였다. 이는 三焦의 火가 上升하여 金을 侮한 것이다. 書에 말하길 火와 元氣는 兩立할수 없다하니 火가 盛한 즉 元氣가 弱하고 元氣가 弱한 즉 諸病이 生하니 온 몸이 倦怠한 者는 火가 그 精神을 耗한 것이다. 하품은 火가 鬱하여 伸하지 못 한 것이다. 口乾하고 飮冷한 것은 火가 上에 熾盛한 것이다. 飮食이 不進한 것은 火가 中에 格한 것이다. 氣가 消하고 骨이 露한 것은 火氣가 消爍한 것이다. 諸病이 모두 火로 因한 것이니 만약 먼저 火를 治하지 않으면 血氣가 어찌 말미암아 平하겠는가. 故로 내가 山梔炒黑을 用하여 三焦 屈伸의 火를 去하고 人蔘 麥門冬으로 肺中의 부족한 金을 收하며 烏梅의 酸으로 收하니 火勢가 이미 降하고 金體가 스스로 堅하며 氣가 暢하고 血이 和하여 낫게 되는 것이다. 그 源을 궁구히 하지 않고 血氣에 얽매이면 어찌 이로움이 있겠는가. 또한 묻기를 病의 源을 내가 알았다. 수년동안 姙娠하지 못한 것은 어째서 인가. 내가 말하길 婦人의 姙娠은 經을 調하는데 있으니 經이 不調함은 氣가 順하지 못한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다 血虛라 하여 血을 補하니 만약 經水가 過期하고 色淡하며 肝脈이 微弱하고 無力함을 이르러 血虛라 할 수 있다. 지금 過期가 많고 매번 三, 五日하다가 바야흐로 止하니 그 色이 紅紫하고 肝脈이 有力하니 이내 氣滯하고 血盛한 것이다. 어찌 虛라 하겠는가. 氣滯하고 血이 實함을 다시 人蔘과 黃芪를 用하여 補하니 氣가 오히려 滯하고 血이 오히려 實하여 어찌 月水가 정확하여 姙娠하겠는가. 故로 내가 調氣藥을 爲主로 하고, 養血藥을 佐하여 氣를 順하게 한즉 血이 行하여 經事가 期에 맞춰 姙娠에 準이 있게 되는 것이다. 降火를 먼저 하여 病이 낫게 되고, 지금 調

氣를 爲主로 하여 胎가 있게 되니, 治法이 같지 않으니 病源이 어찌 하나 이겠는가. 氣는 火요 氣가 餘하면 즉 火이니 그 病이 氣鬱일 따름이다. 鬱氣가 한 번 舒하면 火邪가 스스로 退하니, 그 病에 본래 하는 대로 效를 取하게 되는 것이다. 張子和가 말하길 病을 求함에 다만 本을 얻어 千人을 治함에 하나도 損함이 없어야 한다고 함을 이른 것이다.

3.3. 王孟英 醫案

王士雄의 字는 孟英이고 自號는 半癡山人이다. 葉天士를 私淑했고, 溫病의 證治와 理論에 獨創的인 見解가 있어서 中國近代에 비교적 영향을 끼친 溫病學家 중의 하나이며, 癨亂의 辨證論治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溫熱經緯, 癨亂論, 歸硯錄의 著作이 있다. 그는 당시 傳入된 西洋解剖 生理學 등에 대해 비교적 開放的인 態度를 取하여, 西醫說을 拒否하고 中西의 臟腑가 같지 않다고 보는 논점 등에 대해 批判을 加하였다.

<鬱>

@ 原文 : 室女多抑鬱. 乾嗽爲火鬱. 王杞庭姊年踰標梅. 陡患乾嗽. 無一息之停. 目不交睫. 服藥無功. 孟英診焉. 兩脈上溢. 左兼弦細. 口渴無苔.乃眞陰久虛. 風陽上僭. 衝嗽不已. 厥脫堪虞. 授牡礪龜板鱉甲石英蒺蓉茯苓熟地歸身牛膝冬蟲夏草胡桃肉之方. 藥甫煎. 果欲厥. 亟灌之卽寐. 次日黃昏猶發寒瘛. 仍灌前藥. 至第三夜僅有寢汗而已. 四劑後諸恙不作. 眠食就安. 設此等潛陽鎭逆之方. 遲投一二日. 變恐不可知矣. 況作鬱治而再用開泄之品耶. 故辨證爲醫家第一要務. (衝脈繫於肝. 乾嗽卽肝陽賊肺之嗽.)

李華甫妻患頭震. 孟英脈之. 乃肝經鬱怒火升也. 投當歸龍薈丸而廖. 然不能懲忿. 其病發之後. 更兼溺悶腹脹. 喘汗欲絶. 孟英視之. 脈甚弦澁. 口苦苔黃. 舌色紫黯. 汎雖不慾. 內有瘀滯也. 以雪羹加金鈴旋覆梔子滑石桃仁茺蔚車前子木通仍吞龍薈丸.(辨瘀滯在腹脹脈弦澁. 舌脈紫黯.) 外以大田螺三個. 生蒜六瓣. 車前草一握. 搗紮臍下. 服後果先下黑血. 溲卽隨通. 繼而更衣. 糞色亦黑. 遂愈.

@ 解說 : 室女는 抑鬱한 일이 많았다. 마른기침을 하는 것은 火鬱로 인한 것이다. 王杞庭의 손위누이는 해를 넘기면서 갑자기 마른기침이 잠시도 쉬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약을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孟英이 진찰을 하여보니, 兩脈上溢하면서 左兼弦細하고 口渴無苔하므로, 이에 眞陰久虛로 風陽이 上을 침범하여 기침이 그치지 않고 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牡蠣, 龜板, 鱉甲, 石英, 肉蓯蓉, 茯苓, 熟地, 當歸身, 牛膝, 冬蟲夏草, 胡桃肉의 方을 주어 발작이 일어 날려고 할 때 급히 藥을 복용시키니 잠이 들었다. 다음 날 黃昏에 寒瘛[9]이 발생해 前藥을 주니 삼일동안 저녁에 땀을 흘리고, 네 재를 복용하고 난 후에는 모두 나아 수면과 식사를 편히 했다. 만약 潛陽鎭逆의 약을 1~2일 늦게 투여했더라면 증상이 많이 악화되었을 것이다. 하물며 鬱을 治하는데 開泄의 藥을 썼더라면 어찌했겠는가. 故로 辨證은 醫家의 제일 중요한 일이 된다. 鬱證의 主要病機는 肝失條達, 心神不寧한 것이고, 主로 心脾肝腎의 虧虛와 血瘀, 化火, 痰結, 食滯를 兼하여 나타나는 症狀을 많이 볼 수 있다[10]. 위의 例는 腎의 물질적 기초가 부족해 나타난 化火의 症狀으로 생각되며, 때문에 腎陰 腎陽을 補하는 藥物을 투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李華甫의 妻가 頭震으로 근심하기에 孟英이 脈을 보니, 肝經鬱怒로 火가 升하였다. 當歸龍薈丸을 投與해서 나았다. 그러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병이 발생하였다. 溺悶腹脹 喘汗欲絶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 孟英이 보니 脈甚弦澁 口苦苔黃 舌色紫黯 汎雖不慾하니 이는 內有瘀滯한 것으로, 雪羹에 旋覆花 金鈴子 梔子 滑石 桃仁 茺蔚子 車前子 木通을 더해서 달여 이 물로 龍薈丸을 삼키게 하였다. 외치법으로 大田螺 3개, 生蒜 六瓣, 車前草 一握을 臍下에 감아서 묶어 놓았다. 服用 후 먼저 黑血을 下血하고 小便도 通했으며 이어서 옷을 갈아입었고 大便色도 또한 검어져 마침내 나았다. 情志三鬱은 怒鬱, 思鬱, 憂鬱을 말하는 것으로 모두 心에서 비롯된 것이나, 怒鬱은 직접적으로 肝과 관련되며, 舌色紫黯한 것은 瘀血의 症狀表現으로 보여진다.

<驚>

@ 原文 : 李某戊年冬醉飮夜歸. 受人驚嚇. 神志漸昏. 治之罔效. 至於不避親疎. 裸衣笑罵. 力大無制. 糞穢不知. 己年

夏孟英視之. 用石菖蒲遠志龍齒龜板犀角羚角元參丹蔘知柏梔子龍膽草枳實黃連竹黃竹瀝石膏赭石黑鉛鐵落出入爲方. 十餘貼吐瀉膠痰甚多. 繼予磁硃丸. 漸以向愈.

邵魚竹起居飮食如常. 惟僅能側臥. 稍一合眼. 則驚竄而醒. 雖再側眠. 易徹夜不得寐. 多年莫能治. 孟英以三才合枕中丹加黃連肉桂服之良效.

王季傑妾因夜間未寐. 侵晨飮酒解寒. 遘見人爭誶. 卽覺心跳. 欲吐不出. 氣卽逆奔如喘. 且肢麻手握. 語言難出. 孟英視之. 脈象弦駛. 曰. 夜坐陽升. 飮醇則肝陽益浮. 見人爭誶. 是驚則氣更上逆. 不可刺也. 灌以蘇合香丸一顆. 下嚥卽瘥.

王瘦石稟屬陰虧. 卒聞驚嚇之聲, 而氣逆肢冷. 自汗息微. 孟英視之. 身面皆靑綠之色. 脈沈弦而細. 乃素傷憂慮而風陽陡動也. 予牡蠣四兩. 鱉甲二兩. 蛤殼一兩. 石英五錢. 龍齒小麥辰砂麥冬茯神貝母竹茹爲方. 一劑知. 二劑已. 續以滋養而瘳.

閭人妻因雷震火藥局驚醒. 卽覺氣不舒暢. 半載以來. 漸至食減形消. 神疲汎少. 惟臥則其病如失. 藥治罔效. 孟英診之. 病人坐起. 果卽面赤如火. 氣息如奔. 似不能接續者, 苟登圊溲便. 必實逆欲死. 前所服藥破氣行血和肝補肺運脾納腎淸火安神諸法具備. 如水投石. 孟英仿喻氏治厥巔疾之法用藥. 一劑知. 旬餘愈.

@ 解說 : 李某씨가 戊年 겨울밤에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던 중에 사람을 보고 놀라 神志가 점차 昏迷해져 치료를 했으나 효과가 없어, 가까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옷을 벗고 욕하며 힘이 세져 제압할 수 없었고 더러운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다. 己年 여름에 孟英이 그 환자를 보고 石菖蒲 遠志 龍齒 龜板 犀角 羚羊角 元蔘 丹蔘 知母 黃柏 梔子 龍膽草 枳實 黃連 竹黃 竹瀝 石膏 代赭石 黑鉛 鐵落으로 처방을 해서 십여첩을 복용시키니 吐瀉膠痰이 심해 이어 磁硃丸을 먹였더니 점차 회복이 되었다. 이 症狀은 陽實陰虛挾痰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祛痰淸熱滋陰鎭驚의 藥物을 투여하여 치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邵魚竹이 생활하고 먹는 것은 평상시와 같았는데, 오직 側臥位로만 잠을 조금 잘 수 있었고 놀라서 깨게되면 다시 잠에 들 수 없었다. 여러 해 치료를 했으나 효과가 없어 孟英이 세 살 된 어린이와 함께 잠을 자게 하면서 中丹에 黃連 肉桂를 더해서 복용시켰더니 좋은 효과가 있었다. 이는 心身不交에 의해 나타나는 症狀으로 心身不交가 되면 仰臥位로 누울 수 없게되는데, 그 이유는 仰臥位로 누우면 腎氣가 上承하지 못해 心氣가 더욱 浮하게 되기 때문이다. 고로 淸心熱하는 黃連과 腎氣를 補하는 肉桂를 加味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王季傑의 처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녘에 술을 마셔 寒氣를 풀었으며, 사람을 보면 싸우려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惡心이 있었고 氣가 逆해서 호흡이 가쁘며 팔다리가 뻣뻣해지면서 주먹을 쥐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증상이 있었다. 孟英이 보니 脈이 弦하면서 빨라, 陽이 升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술을 마시게 되니 肝陽이 더욱 浮해져 사람을 보게되면 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驚으로 인해 氣가 上逆된 것으로 침을 놓는 것은 不可하다하고 蘇合香丸을 복용시키니 차도가 있었다. 이것은 驚으로 인해 痰閉氣結하여 나타난 症狀으로, 卒暴氣逆에 쓰는 蘇合香丸의 通氣作用을 이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王瘦石은 본래 陰虧한 體質에 속하는데, 갑자기 꾸짖는 소리를 듣고 놀라 氣가 逆하니, 팔다리가 차고 自汗이 있으면서 숨소리가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孟英이 보니 몸과 얼굴이 모두 청록색이고 脈은 沈弦細하였다. 이것은 본디 憂慮에 傷해있던 중에 風陽이 갑자기 動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鱉甲 蛤殼 石英 龍齒 小麥 辰砂 麥門冬 茯神 貝母 竹茹로 처방을 내어 한 제를 복용시키니 효과가 있었고 두 재를 복용시키니 증상이 없어졌으며 계속해서 滋養을 시켜 완치시켰다. 望切診의 내용을 보았을 때, 위의 증상은 원래 陰虛한 體質에 驚으로 인해 肝血이 不足해져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농사꾼의 부인이 벼락으로 약국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놀라 氣가 잘 소통되지 않아, 점차 먹는 양이 줄면서 몸이 마르고 정신이 혼미해졌으나 오직 누워있을 때는 증상이 소실되는 증상이 있어 치료를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孟英이 진찰해보니 환자가 앉아 있을 때는 얼굴이 마치 불이 난 것처럼 벌겋게 되었고 呼吸이 마치 달리는 것처럼 빨라져 죽을 것 같았다. 前에 破氣 行血 和肝 補肺 運脾 納腎 淸火 安神의 모든 치법을 사용했으나 이것은 물

에 돌은 던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孟英은 喩氏의 厥巓疾의 치법을 모방하여 약을 한 제 복용시켰더니 십여일이 지나 좋아졌다. 위의 증상은 놀람으로서 肝氣鬱結이 되어, 犯脾胃하고 肝火上逆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사료된다.

<狂>

@ 原文 : 李叟年越古稀. 意欲納妾. 子孫不敢從. 因此漸病狂惑. 羣醫廣投熱補. 愈服愈劇. 孟英診之. 脈勁搏指. 面赤不言. 口涎自流. 力大無制. 曰. 此稟賦過强. 陽氣偏盛. 故前欲納妾. 醫不知旣享大壽. 得天必厚. 況人年五十. 陰氣先衰. 徐靈胎所謂千年之木往往自焚. 陰盡火然. 萬物皆然. 去冬吾治邵可亭孤陽喘逆. 壯水淸火之外. 以天生甘露飮. 灌至二百餘斤. 病已漸平. 僅誤於兩盞薑湯. 前功盡墮. 可見稟賦偏陽者. 陰難充長. 火易燎原. 今附桂仙茅鹿茸參戟河車等藥. 服之已久. 更將何物以生其涸竭之水而和其亢極之陽乎. 尋果不起.

費伯元患煩躁不眠. 醫見苔白. 投以溫藥. 因而狂妄瘛瘲. 多方不應. 孟英視之. 左脈弦細而數. 右耎滑. 乃陰虛之體. 心火熾肝風動而痰盛於中也. 先以犀羚桑菊息其風. 元參丹皮蓮心童溲淸其火. 茹貝雪羹化其痰. 隨與三甲二至磁硃潛其陽. 甘麥大棗緩其急. 地黃麥冬養其陰. 漸次康復.

@ 解說 : 李叟는 古稀를 넘었는데 첩을 들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손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이로 인해 狂症이 나타났다. 많은 의사들이 熱補藥을 투약하였으나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孟英이 진찰을 해보니 脈이 매우 强하고 얼굴이 붉으면서 말을 못하고 침을 흘렸으며 힘이 세어 제압할 수 없었다. 孟英이 이는 본래 타고난 체질이 매우 강하여 陽氣가 너무 盛해 이런 이유로 첩을 들이려고 한 것인데, 의사들이 수명을 다한 것과 원래 강하게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사람이 오십이 넘으면 陰氣가 먼저 衰하니 徐靈胎가 말하기를 천년 묵은 나무는 왕왕 스스로 몸을 불사르는데 陰이 다하면 火가 되는 것은 바로 自然의 이치라고 하였다. 겨울이 지나 내가 치료하러 갔을 때 그는 정자에 홀로 앉아 볕을 쬐며 몹시 숨차 했는데, 壯水로 몸을 淸火시키고 天生甘露飮을 복용시켰더니 병이 점차 평안해졌다. 환자가 生薑湯 두 잔을 잘못 복용한 후 전의 효과가 모두 없어졌는데, 원래 체질이 陽이 偏盛된 사람은 陰이 充長하기 어렵고 火가 불이 난 벌판처럼 일어나기는 쉽다. 지금 附子 肉桂 仙茅 鹿茸 人參 大戟 紫河車 등의 藥을 이미 복용한지 오래이니 장차 어떤 약물로 고갈된 水를 生해 亢極된 陽과 조화롭게 할 것인가. 그 결과를 찾을 길이 없다.

費伯元이 煩躁不眠의 질환이 있어 의사가 舌苔가 白한 것을 보고 溫藥을 투여했는데, 이로 인해 狂妄瘛瘲의 병이 되어 여러 처방을 써봤으나 효과가 없었다. 孟英이 보니 左脈이 弦細數하고 右脈이 耎滑하였는데, 이는 陰虛의 체질로 心火가 熾盛하고 肝風이 動해 痰이 가운데서 盛한 것으로 보았다. 먼저 犀角 羚羊角 桑枝 甘菊으로 風을 가라앉히고, 元參 丹皮 蓮心 童便으로 火를 식혔으며, 竹茹 貝母 雪羹으로 痰을 풀었다. 더불어 磁石 硃砂로 偏盛된 陽을 잠재우고, 甘草 麥芽 大棗로 急한 것을 풀어주었으며, 地黃 麥門冬으로 가라앉은 陰을 길러주었더니 점차로 건강이 회복되었다.

左脈이 細數한 것은 血分陰虛한 것으로, 左脈이 弦細한 것은 狂妄瘛瘲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右脈이 耎滑한 것은 痰盛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3.4. 齊有堂 醫案

齊秉慧의 字는 有堂이고, 著書에 齊氏醫書四種이 있는데 醫案, 家傳醫秘, 痢症滙參, 痘麻醫書를 包括하고 있다.

<頭痛>

@ 原文 : 治一人. 遇怒則少陽兩側頭痛. 先用小柴胡湯. 加茯苓山梔. 二服而效. 繼用六味地黃丸. 壯水之主. 以鎭陽光. 而再不發.

又治譚侍御. 每頭痛必吐淸水. 不拘冬夏. 吃薑便止. 余曰此中氣虛寒. 用六君子湯. 加當歸芪朮木香炮薑而安.

又治商姓者. 遇勞則頭痛. 余曰脾陰下陷. 陽虛不能上升. 遂與補中益氣湯加蔓荊子而痊.

@ 解說 : 어떤 사람을 치료하였는데 怒하게 되면 少陽經을 따라 兩側頭痛이 나타나 먼저 小柴胡湯에 茯苓 山梔子를 더해서 두 번 복용하였더니 효과가 있었다. 계속해서 六味地黃丸으로 水를 키우고 陽을 눌러주었더니 다시 재발이 없었다. 또 譚侍御를 치료했는데 頭痛이 있을 때

마다 반드시 淸水를 吐하는 증상이 있어 生薑을 먹였더니 바로 그쳤다. 이는 中氣가 虛寒한 것으로 六君子湯에 當歸 黃芪 白朮 木香 炮乾薑을 더해 복용시키니 안정되었다. 또 商氏 姓을 가진 사람을 치료했는데 過勞하면 頭痛이 생기니, 이는 脾陰下陷으로 陽虛하여 上升하지 못하는 것으로 補中益氣湯에 蔓荊子를 더해 주었더니 완치되었다.

양측頭痛은 少陽相火에 의해 발생되는 熱症으로 標症에 대해서는 小柴胡湯으로 淸熱시키고 本에 대해서는 六味地黃湯으로 補腎水함으로서 根治를 시도하였고, 中氣虛寒으로 인한 頭痛에는 止嘔逆의 효능이 있는 生薑을 응용하였으며, 氣虛頭痛에는 補氣之劑로서 치료하였다.

3.5. 姚龍光 醫案

<臟燥>

@ 原文 : 階翁夫人. 病後二年. 生女未存. 又因不遂意事. 心常悒悒. 產後又病. 請吾前輩與蔣亦世交. 又是緊鄰. 且素有時名. 故生死倚之. 服藥無效. 日見加重. 前輩囑令邀余商治. 前輩向余曰. 此病無寒熱. 亦無痛楚. 但飮食不進. 已有多日. 終日啼哭. 百勸莫解. 舌色淡紫. 苔多剝落. 是胃氣已絶. 萬無生理. 已囑辦後事. 君盍往診再商一治法. 聊以盡心而已. 往診其脈右三部浮數無力. 左三部弦數無力. 舌色紅而兼紫. 苔剝落. 余思脈證均非死候. 然不能明言. 因復命曰. 誠如君言. 予亦不敢措手. 前輩不許. 囑開二陳以搪塞. 服訖仍如故. 明日復診. 診後擬至前輩家商酌. 適前輩之令郎在坐. 請余主持. 不必往商. 竭力阻余. 余思此病尙可挽回. 究以人命爲重要. 不必避此嫌疑. 乃用炙甘草五錢小麥一合大棗十二板. 令多煎. 緩服一帖. 哭泣便減. 舌苔復生. 三帖全愈. 此蓋臟燥症也.

金匱云. 婦人臟燥. 喜悲傷欲哭象. 如神靈所作者. 甘麥大棗湯主之. 卽此症也. 脈症相符. 故取效最速. 此症黃八種內. 論之精詳. 發明金匱之奧. 誠金匱之功臣也.

@ 解說 : 階翁 夫人이 病이 난지 二年이 되도록 자식이 없고, 또 뜻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마음이 항상 근심스럽고 產後에 病을 얻어, 나의 선배에게 치료를 請하였다. 선배가 蔣亦世와 교분이 있고 아주 친한 이웃이었다. 또한 명성이 있는 의사여서 生死를 맡기어, 藥을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병이 더 심해졌다. 선배가 나에게 치료를 부탁하면서, 이 病은 寒熱이 없고 痛症 역시 없으나 다만 飮食을 먹지 못한지 이미 오래되었고 終日 울기만 하며 舌色이 淡紫色을 띠고 苔가 많이 剝落하니 이것은 胃氣가 이미 絶하여 구할 도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後事를 부탁하였다. 診脈을 해보니 右脈은 모두 浮數無力하고 左脈은 모두 弦數無力하며 舌色은 紅하나 紫色을 兼하였고 苔는 剝落하였다. 내가 脈證을 생각해보니 모두 死候는 아닌 것 같았으나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막힌 것을 뚫어주기 위해 二陳湯을 복용시켰으나 예전과 틀린 바가 없었다. 나는 이 병은 치료될 수 있으며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 이 병을 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炙甘草 五錢 小麥 一合 大棗 十二板을 달여 천천히 한첩을 복용시키니 哭泣이 줄어들고 舌苔가 다시 生하며 세첩을 복용시키니 완치가 되었다. 바로 이것은 臟躁症이다.

金匱에서 이르기를 婦人臟燥는 喜悲傷欲哭하는 모습이 마치 귀신의 소행인 것 같은 증상이라고 하면서 甘麥大棗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臟躁의 病理에 대해 吳謙은 醫宗金鑑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1]. "心靜則神藏 若爲七情所傷 則心不得靜而神躁擾不寧也. 故善悲傷欲哭 是心不能主情也." 즉 本症은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비롯되는 질환으로, 西洋醫學에서는 이를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 중 전환장애(conversion disorder)에 포함시키고 이전에는 히스테리신경증 전환형(hysterical neurosis, conversion type)으로 진단하기도 하였다. 轉換障碍의 원인은 억압된 욕구가 일부 상징적으로 전환하여 표현된 것으로, 무의식과정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므로 환자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으며, 이 증상을 통해 환자는 주위환경과 대화하고 또한 통제하여 구체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심리기제를 가지게 된다[7].

3.6. 蕭琢如 醫案

<狂>

@ 原文 : 李某. 年二十餘. 先患外感. 諸醫雜治. 證屢變. 醫者却走. 其父不遠數十里踵門求診. 審視面色微黃. 少腹滿

脹. 身無寒熱. 坐片刻. 卽怒目注人. 手拳緊握伸張. 如欲擊人狀. 有頃卽止. 嗣復如初. 脈沈濇. 舌苔黃暗. 底面露鮮紅色. 脈畢. 主人促疏方. 並詢病因. 答曰. 病已入血分. 前醫但知用氣分藥. 宜其不效. 內經云. 血在上善忘. 血在下如狂. 此症卽傷寒論熱結膀胱. 其人如狂也. 當用桃核承氣湯. 卽疏方授之. 一劑知. 二劑已. 嗣以逍遙散加丹梔生地調理而安.

周某. 年三十許. 患傷寒. 醫藥遍試不痊. 適余以戚病往視. 遮道挽診. 云刻已外症毫無. 但精神恍惚. 不甚省人事. 時欲就臥房溲桶. 以面向之. 禁之卽大叫. 伸拳擊人. 疑爲祟憑. 僧巫祈禱. 幾無虛日. 脈沈結. 溲便如常. 舌苔微黃而晦. 余以症疑未審. 約以明日至余戚家取方. 戚怪余至之晏. 具以告. 戚又疑要厚禮. 方肯給方. 余曰非也. 症未審. 故不予方. 次日. 其家遣人索方. 授桃核承氣湯. 二劑而愈. 戚以症奇方靈就質. 余曰. 內經云. 血在下如狂. 仲景亦曰. 熱結膀胱. 其人如狂. 是卽傷寒蓄血症也. 此症恍惚不省人事. 及大叫伸拳擊人. 卽如狂之見症. 人身小便. 爲通瘀妙品. 婦科產後. 常用以治瘀血. 病者時欲面向便桶. 意其內旣有瘀血. 其臟腑必有室礙難言之隱. 故藉吸入溲氣以宣其鬱. 醫者讀古人書. 以參考病人見症. 豈必一一脗合. 當如作八股文. 從旁面對面反面着想. 則題理題神. 晤然若揭. 毫無遁情. 所謂讀書不可死於句下也. 余本內經之理以探病原卽用仲景之方. 以剷病根. 獲效所以神速. 無他巧妙也.

@ 解說 : 李某가 나이 二十餘살에 外感의 증상이 있어, 많은 의사들이 치료를 혼잡스럽게해 證이 여러번 變하였고, 의사들은 치료를 그만두고 물러났다.. 그 아버지가 수십리를 멀다않고 걸어와 診察을 請해, 살펴보니 面色이 微黃하고 少腹이 滿脹하며 身에는 寒熱이 없고 잠시 앉아 있으면 바로 성난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주먹을 쥐어 뻗어서 사람을 치고자하는 듯 하였다가 그치고 다시 처음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脈이 沈濇하고 舌苔는 黃暗하며 그 아래 부분은 鮮紅色이었다. 그 아버지가 급히 달려와 病因을 물어, 病이 이미 血分에 入하였는데 前醫가 氣分의 藥만을 써 효과가 없었다고 답해 주었다. 內經에 이르기를 血이 上에 있으면 善忘하고 血이 下에 있으면 狂한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 症은 傷寒論의 熱結膀胱하여 사람이 狂한 것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마땅히 桃核承氣湯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재를 주었더니 효과가 있었고 두재를 복용시키니 증상이 그쳤다. 이어서 逍遙散에 丹蔘 梔子 生地黃을 더해 조리하니 안정되었다.

周某가 나이 三十정도에 傷寒을 앓아 의사가 藥을 두루 사용하였으나 치료되지 않았다. 診察하여보니 外症은 전혀 없고 단지 精神이 恍惚하여 人事를 살피지 못하고 때때로 방에 누워서 오줌통으로 얼굴을 향하고 못하게 하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을 때리려고 하였다. 祟憑의 증상으로 의심하여 승려와 무당을 불러 기도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脈은 沈結하고 소변은 정상적이었으며 舌苔는 微黃하며 어두웠다. 桃核承氣湯을 주었더니 二劑를 복용하고 좋아졌다. 內經에 이르기를 血이 下에 있으면 狂한 것 같다고 하였고, 仲景도 또한 이르기를 熱이 膀胱에 結하면 사람이 狂한 것 같다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傷寒蓄血證[12]이다. 이 症은 恍惚하여 人事를 살피지 못하고 또한 크게 울부짖으며 주먹을 펴서 사람을 치려하니 마치 狂한 것처럼 보인다. 사람의 小便은 通瘀의 妙品이되니 產科產後에 常用하여 瘀血을 治한다. 病者가 때때로 오줌통에 얼굴을 향하는 것은 안에 瘀血이 이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臟腑는 반드시 안에 숨겨져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故로 소변의 氣運을 빨아들여 그 뭉친 것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다. 醫者가 古書를 읽으며 환자의 증상을 참고하는데 어찌 일일이 부합하겠는가. 마땅히 八股文을 쓰는 것과 같이 旁面 對面 反面을 세심히 생각해 그 理와 神을 밝히면 사리의 밝음이 높게 드러나 조금도 情에 얽매임이 없을 것이다. 讀書不可死於句下也는 바로 이를 이름이다. 나는 內經의 理致를 근본으로 하여 病原을 探究하고 仲景의 處方으로 치료를 하여 병의 뿌리를 없애 신속한 효과를 얻는 것이지 다른 巧妙한 방법은 없다.

如狂이란 狂症과 비슷한 症狀을 이르는 말이니, 즉 類似狂症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精神病과 달리 그 發病이 다른 身體的인 疾患이 원인이 되어 그 경과 중에 오는 精神症狀이므로, 일종의 症狀精神病 또는 一時的인 精神錯亂 등이 이에 해당된다[6].

<頭痛>

@ 原文 : 高等檢察廳書記潘某. 初患頭痛. 往來寒熱. 余

以小柴胡湯愈之. 已逾旬矣. 後復得疾. 諸醫雜治益劇. 延診時. 云胸中痞滿. 欲嘔不嘔. 大便溏泄. 腹中水奔作響. 脈之緊而數. 正疎生薑瀉心湯. 旁有少年謂黃連黃芩涼藥. 乾薑生薑熱藥. 人蔘補藥. 何一方混雜乃爾. 余曰. 方出傷寒. 仲景明言胃中不和. 心下痞硬. 乾噫食臭. 腹中雷鳴下利者. 生薑瀉心湯主之. 吾乃照錄原方. 毫無加減. 旣患寒熱錯雜之症. 必用寒熱錯雜之藥. 其人語塞而退. 已而一劑知. 二劑愈. 閱日復延診. 其人從旁笑謝曰. 日前輕慢乞恕. 乃今知古方之不可思議也. 余笑頷之而去.

@ 解說 : 高等檢察廳의 書記인 潘某는 初期에 頭痛이 있으면서 寒熱往來의 증상이 있어 小柴胡湯을 주어 치료하였으나 십여일이 지나 다시 재발하였다. 많은 의사들이 혼잡스럽게 치료하여 병이 더욱 심해졌다. 진찰을 하여보니 胸中痞滿 欲嘔不嘔 大便溏泄 腹中水奔作響의 증상이 있으면서 脈이 緊數하였다. 바로 生薑瀉心湯을 주었더니 옆에 있던 少年이 黃連 黃芩은 涼藥이고, 乾薑 生薑은 熱藥이며, 人蔘은 補藥인데 어찌 한 처방에 혼용을 하느냐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이 처방은 傷寒論에 나오는 것으로, 仲景이 胃中不和 心下痞硬 乾噫食臭 腹中雷鳴下利者는 生薑瀉心湯으로 치료한다고 밝혀 놓았다. 나는 原方에 조금도 加減이 없이 寒熱錯雜의 증상에 사용한 것으로, 한 제에 효과가 있었고 두 제에 다 나았다. 확인 차 다음날 다시 진찰을 하였는데, 그 소년이 옆으로 다가와 전에 경솔하였던 것을 용서해 달라며, 이제야 古方의 不可思議를 알겠다고 말하였다.

위의 頭痛樣相은 傷寒에 의해 發生된 胃中不和가 직접적인 頭痛의 原因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7. 葉天士 醫案

葉桂의 字 天士이고 號는 香巖이다. 葉桂는 時疫과 疹痘의 治療에 能通하였고, 衛氣營血辨證의 綱領을 제창했으며, 溫熱證의 傳染經路, 發病部位 및 辨證論治 등에 대해 모두 獨創的인 論述을 하여 溫病學을 정립한 사람 중 하나이다. 그의 醫理는 주로 張仲景을 따랐으며, 溫病에서 仲景의 說을 體로 삼고 劉完素의 論을 用으로 삼았다. 雜證은 孫思邈, 李杲, 朱震亨, 張景岳, 喩嘉言 등의 諸家에서 取하였으며, 溫熱論, 臨證指南醫案, 葉案存眞 및 未刻葉氏醫案을 著述하였다.

<鬱>

@ 原文 : 形勞悒鬱之傷. 脈得左部弦勁. 肝血膵汁已少. 目翳紅赤. 治以涼肝滋液.

悲憂哭泣致病. 不饑欲嘔. 病屬鬱症. 治當條達肝胃. 第胃爲陽土. 肝寄相火. 雖結瘕氣燥熱未宜.

因嗔怒. 心胸痞脹三年. 左脅下堅凝有形. 偶觸勞忿. 則寒熱無汗. 此屬鬱痺氣血. 延成肥氣治當宣通營衛. 流行脈絡. 佐入攻堅. 俾寒熱得止. 再議.

問病起於功名未遂. 情志鬱勃. 人身之氣. 左升右降. 怒必木火暴升. 肝膵橫逆. 肺反爲木火乘侮. 全無制木之權. 呼吸病加. 絡血被氣火擾動亦令溢出上竅. 更加勤讀苦工. 身靜心動. 君相何由以寧. 春夏頻發. 地中氣升. 陽氣應之. 內起之病. 關係臟眞. 情志安和. 庶病可卻.

悲驚不樂. 神志傷也. 心火之衰. 陰氣乘之. 則多慘戚. 擬大建中湯.

嘉興(五十三) 情志內鬱. 心痛如絞. 形瘦液枯. 不可氣燥熱藥.

@ 解說 :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즐겁지 않아 鬱滯되어 병이 되면, 左脈이 弦勁하게 나타나고 肝血膵汁이 감소되며 目翳紅赤이 되니, 涼肝滋液의 치법으로 치료한다. 이는 肝氣鬱結된 상태에서 肝血이 부족해짐으로 말미암아 肝火가 上逆되어 생긴 증상으로 보인다.

悲憂哭泣으로 병이 되어 不饑欲嘔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 병은 鬱症에 속하는 것으로, 마땅히 條達肝胃의 치법으로 치료한다. 胃는 陽土가 되고 肝은 相火에 의지하므로 비록 瘕氣燥熱을 이루어도 다 풀리지 않는다. 不饑欲嘔의 증상은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되어 肝氣犯胃함으로서 胃의 下降機能이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표현으로 생각된다.

嗔怒로 인해 心胸痞脹이 생긴지 三年이 되어 左脅下에 굳게 뭉친 것이 있고, 우연히 勞忿에 접촉된즉 寒熱無汗하니 이는 鬱痺氣血에 속한다. 肥氣를 이룬 것을 치료할 때는 마땅히 宣通營衛 流行脈絡하게 하여 굳어진 것을 풀어주도록 도와주면 寒熱이 곧 그치게 된다.

功名을 이루지 못해 情志鬱勃되어 생기는 병을 물었다.

人身의 氣는 左升右降하는데, 怒하면 반드시 木火가 暴升하여 肝膽橫逆하고, 肺는 도리어 木火에게 乘侮당하니 木의 權勢를 억제하지 못한다. 呼吸病이 더해져 絡血은 氣火의 擾動으로 또한 溢出上竅한다. 더불어 勤讀苦工이 가해지면 身靜心動해지니, 君相火가 어찌 편안해지겠는가. 春夏에 頻發하여 地中氣가 升하면 陽氣가 應하게돼 안에서 기인된 病은 關係臟眞하니 情志安和하며, 어떤 병을 가히 물리치겠는가. 人身의 生命活動은 氣의 作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升降出入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心腎은 升降의 樞軸이되고 肝肺는 升降의 外輪이 되며 脾胃는 升降의 根本이 된다. 肝과 肺는 모두 陰臟이지만 그 用에 있어서는 구별되는 바가 있다. 즉 肝은 體陰用陽의 臟器이고 肺는 體陰用陰의 臟器로, 相火를 가지고 있는 肝은 항상 妄動하기 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위의 症狀은 바로 肝肺의 升降出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사료된다.

悲驚不樂하면 神志가 傷하고, 心火가 衰하면 陰氣가 乘하게 되어, 애처롭고 잘못 되는게 많을 것이니 大建中湯을 사용한다. 이는 水氣凌心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53세된 嘉興이 情志內鬱하여 목을 매는 것 같은 心痛이 있고 形瘦液枯하니 氣燥熱藥을 사용하는 것을 불가하다. 이는 鬱久而燥하므로 燥熱藥의 사용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頭痛>

@ 原文 : 沈陽(五十四) 住居臨海. 風瘴瘴氣. 不似平原人衆稠密處. 瘴癘侵入腦髓骨骾. 氣血不和. 漸次壅遏. 上蒸頭面. 淸陽痺阻. 經年累月. 邪正混處其間. 草木不能驅逐. 憑理以論. 當以蟲蟻. 向陽分疎通逐邪.

頭痛累月. 陽脈大陰脈塞. 此陰衰於下. 陽亢於上. 上盛下虛之候也. 陽氣居上. 體本虛也. 而濁氣干之. 則實. 陰氣居下. 體本實也. 而氣反上逆. 則虛. 頭爲淸陽之位. 而受濁陰之邪. 陰陽混亂. 天地否塞. 而成病矣. 法用六味地黃湯加靑鉛五錢.

頭痛經年不愈. 早則人事明了. 自午至亥. 神氣昏憒不寧. 風火之劑雜治無功. 兩脈俱沈且滑. 此太陰陽明痰厥頭痛也. 當用礞石滾痰丸. 間服導痰湯. 以蕩滌其痰. 次以六君子湯. 少加秦艽全蠍. 調理而安.

曹漢臣 厥陰頭痛舌乾消渴. 心下煩疼. 無寢多躁. 小腹脹滿. 小便適瀝. 時時痙搐. 最怕厥竭.

稚年陽有餘. 陰不足. 驟加驚恐. 厥陽直升. 爲頭痛. 身不發熱. 二便自通. 豈是風寒停滯. 羌防葛薑. 辛溫混發陽經. 愈升其陽. 必致損目. 宜養陰藥.

@ 解說 : 沈陽(五十四)은 臨海에 거주하고, 그곳은 風瘴瘴氣가 平原의 사람이 많이 사는 곳과 같지는 않았다. 瘴癘가 腦髓骨骾에 침입하면 氣血不和하여 漸次로 壅遏하니, 上蒸頭面하면 淸陽이 痺阻하여 날이 갈수록 邪正이 혼란해진다. 草木으로 驅逐할 수 없으니 그 이치에 따른다면 마땅히 蟲蟻로 陽分을 향하게 하여 疎通逐邪시킨다. 이는 西洋醫學의 細菌感染에 의한 두통양상과 유사하다. 細菌感染은 두통의 원인중 亞急性에 속하며 症狀은 意識障碍, 體溫上升, 頸部强直, 局所的 神經證候를 나타낸다[13].

頭痛이 여러달 계속되면 陽脈大 陰脈塞하는데, 이는 陰衰於下 陽亢於上하는 上盛下虛의 徵候이다. 陽氣居上하면 體本虛하니 濁氣를 방어하면 實해지고, 陰氣居下하면 體本實하니 氣가 도리어 上逆한즉 虛해진다. 頭는 淸陽之位로 濁陰之邪를 받게되면 陰陽이 混亂해져 天地否塞하게 되어 病을 이룬다. 치료법은 六味地黃湯에 靑鉛五錢을 더해서 사용한다. 素體陰虛하거나 房事不節하여 精을 傷하게 되면 腎陰이 不足해지고 따라서 腦髓不充하게 되니[14], 바로 이러한 상황이 邪氣實한 상태로 생각된다. 즉 下虛上實한 것이 原因이 되는 頭痛은 內傷頭痛중 正氣虛의 상황인 腎虧[6]한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頭痛이 여러 해 동안 낫지 않으면서 증상이 아침에는 人事明了하나 午時에서 亥時까지는 神氣가 昏憒不寧하니 風火之劑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兩脈이 모두 沈且滑하니 이는 太陰陽明의 痰厥頭痛이다. 마땅히 礞石滾痰丸을 사용하되 간간이 導痰湯을 복용하게 하여 蕩滌其痰하고, 그 다음으로 六君子湯에 秦艽 全蠍을 조금 더해서 복용시켜 調理而安하게 한다. 痰厥頭痛의 症狀은 頭痛發時兩頰靑黃 眩暈 目不欲開 懶於言語 身重欲吐 飮食不化의 症狀을 가지며, 주로 太陰頭痛의 例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6].

曹漢臣은 厥陰頭痛으로 舌乾消渴 心下煩疼 無寢多躁 小腹脹滿 小便適瀝 時時痙搐의 증상이 있었으니, 厥竭의

증상을 가장 두려워하여야 한다. 厥陰頭痛은 脈浮緩하고 或吐痰沫 厥冷하며, 吳茱萸湯으로 治療한다고 하였다[6].

어릴 때는 陽有餘 陰不足하니 갑자기 驚恐하게되면 厥陽直升하여 頭痛이 된다. 身不發熱 二便自通의 증상이 있어 風寒이 停滯되어 생긴 것으로 보고 羌活 防風 葛根 薑黃의 辛溫한 藥으로 混發陽經하게 되면 그 陽이 더욱 升해 반드시 損目하게될 것이니 養陰藥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西洋醫學에서 小兒 頭痛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체온상승에 연관된 질환 및 비동 또는 부비동감염(sinusitis)이다. 熱이 동반된 두통은 腦膜炎, 腦炎 또는 腦膿瘍의 가능성이 있다. 위의 例에서 驚恐에 의한 두통은 心因性 要因으로, 風寒停滯에 의한 두통은 비동 또는 부비동의 감염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13].

<狂癇 不寐>

@ 原文 : 狂癇陡發莫制. 病去諸事皆清. 發時面靑. 食少. 議泄肝膽.

徽州(四十三) 操持太過. 肝腎浮陽上升乘胃. 寤不成寐.

陝西(四十七) 痰飮乃陰濁所化. 以漸有形. 阻礙陽氣. 不得入於陰. 陰蹻穴空. 夜不熟寐. 靈樞用半夏秫米湯. 謂通陰交陽痰飮不聚也. 天王補心丹. 一派寒凉陰藥轉爲濁陰樹幟矣. 護陽爲要著. 仲景云. 凡痰飮. 當以溫藥和之.

下寒便難. 不寐. 液涸. 陽不潛伏. 用辛甘化風.

@ 解說 : 狂癇이 發하면 억제하기 힘들고, 病이 물러가면 모든 일이 淸하다. 發作時에는 面靑 食少하니 마땅히 泄肝膽에 대하여 의논한다.

操持太過하면 肝腎浮陽하고 上升乘胃하여 잠에서 깨게되고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다.

痰飮은 陰濁이 변화되어 점차 形體를 이룸으로써 陽氣를 阻礙하여 陰分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陰蹻穴이 비면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되니 靈樞에 半夏秫米湯을 用하여 通陰交陽함으로써 痰飮이 모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天王補心丹은 一派에서는 寒凉한 陰藥이므로 濁陰으로 변화되기 쉽다고 하였다. 仲景은 이르기를 痰飮에는 마땅히 溫藥으로 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下寒하여 便難하고 不寐하며 津液이 말라 陽이 潛伏되지 못한 症에는 辛甘한 藥物로 化風한다.

癇의 症狀特徵은 未發作時에는 平人과 같다는 특징이 있으며, 病因 중에 한가지로 大驚大恐의 情志所傷에 의해 損傷肝腎하고, 이로 인해 肝風躁動함으로서 觸及痰涎한 것과 腎陰素虧하여 肝陽易亢함으로서 痰隨火升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14]. 陰蹻脈에 病이 들면 屈伸運動의 障碍와 咽喉痛, 嗜眠, 眼瞼震顫, 癲癇, 下腹痛, 疝症, 帶下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1].

3.8. 薛生白 醫案

薛雪의 字는 生白이고 號는 一瓢이다. 葉天士와 이름을 나란히 해서 서로 批評하였고, 葉天士가 溫熱과 幼科에 精通한 반면, 薛生白은 濕溫에 대해서 特長이 있었다. 溫熱條辨이 그의 著作으로 알려져 있으며, 溫病學의 發展에 상당한 貢獻을 하였다.

<七情>

@ 原文 : 寡居多鬱. 宿病在肝. 遘日暑邪深入. 肝病必來犯胃. 吐蚘下痢得止. 不思穀食. 心中疼熱. 仍是肝胃本症. 況暑濕多傷氣分. 人參輔胃開痞. 扶胃有益. 幸勿致疲可也.

陰萎作痛. 痛甚而愼. 診兩脈. 浮虛而濇. 浮爲氣虛. 濇乃精傷. 陰陽兩虛. 得之憂思勞鬱而傷中也. 經云. 陽明爲氣血之海. 主潤宗筋又陽氣者. 精則養神. 柔則養筋. 今多悒鬱. 則氣必傷. 又任勞倦. 則血必耗. 氣血兩傷. 宗筋失潤. 故令作痞. 治以當歸補血湯.

場屋不遂. 鬱鬱而歸. 神識不清. 胸滿譫語. 上不得入. 下不得出. 脈虛濇兼結. 因此鬱氣所傷. 肺經淸肅之氣. 不能下行. 而反上壅. 由是木寡於畏. 水絶其源. 邪火爲之內擾. 津液爲之乾枯. 胸中結滿者. 氣不得下也. 神昏譫語者. 火亂於上也. 上不得入. 下不得出. 氣化不淸. 而顯天地否塞之象也. 法宜舒通肺氣. 使淸肅下行. 則邪火不擾. 而胸滿自愈矣.

憂勞抑鬱. 肝木日橫. 胃土受剋. 蓋司納主胃. 必須脾陽鼓動. 方得運化耳. 今也有形氣衝. 必得曖氣以流暢. 丹溪所云. 上升之氣. 自肝而出. 其爲肝木侵犯脾胃何疑. 所以納穀竟日. 仍上湧出口. 昔賢云. 噎膈反胃. 本乎陰枯陽結. 良由上逆不下. 腸中乏津以潤濡. 腕中氣痺不行. 漸至窄隘. 不堪容物. 謂之關格. 極難治療. 須閱調攝諸方. 或以鎭墜殺蟲. 或以辛香耗氣. 殊不知氣洩. 則津液更枯. 鎭重. 則淸陽欲寂. 近代

喩嘉言. 法律以申明之矣. 夫曰反者. 陰陽錯綜之謂. 不以順而逆理. 徒以補漏爲法. 經年之恙. 望六之年. 生氣日奪. 吾恐春木生發正旺而病加. 純陽之令而病劇. 據理若是. 同志以爲然否.

@ 解說 : 寡居多鬱하면 宿病이 肝에 있게되고, 햇볕을 가까이 하게 되면 暑邪가 深入하게되어 肝病이 반드시 犯胃함으로써 吐蚘下痢하게되고 그치게 되면 不思穀食 心中疼熱의 증상이 있게되니 이는 肝胃의 本症이다. 暑濕은 多傷氣分하며, 人參은 輔胃開痞 扶胃有益하니 행여 疲勞에 이르지 않게 함이 좋다. 이는 肝氣鬱結로 인해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됨으로서 肝氣犯胃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陰莖作痛하고 痛甚而憒하여 診脈을 하여보니 浮虛而濇하였다. 浮는 氣虛이고 濇은 精傷의 脈으로 陰陽兩虛한데 憂思勞鬱을 얻어 생긴 것이다. 經에 이르기를 陽明은 氣血之海가 되어 宗筋 및 陽氣를 윤택하게 하며 精은 養神하고 柔는 養筋하는데, 지금 悒鬱이 많게 되면 氣가 반드시 傷하고 또 勞倦에 임하면 血 역시 반드시 消耗되니, 氣血兩傷하면 宗筋失潤하는고로 作痞하게 된다. 當歸補血湯으로 治療한다.

벼슬길에 오르려 하나 누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니, 神識不淸 胸滿譫語 上不得入 下不得出 脈虛濇兼結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鬱氣所傷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다. 肺經의 淸肅之氣가 下行하지 못하고 도리어 上壅하면 이로 말미암아 木寡於畏 水絶其源하여 邪火가 內擾하게되고 津液이 乾枯하게된다. 胸中結滿하는 것은 氣가 不得下하는 연유이고, 神昏譫語하는 것은 火亂於上하기 때문이다. 上不得入 下不得出하면 氣化가 不淸하게되어 天地否塞의 象이 나타나니, 마땅히 舒通肺氣의 治法으로 淸肅下行시킨즉 邪火不擾하여 胸滿의 증상이 저절로 낫는다.

憂勞抑鬱하면 肝木이 날로 橫行하여 胃土受剋하게된다. 대개 司納은 胃가 주관하며 모름지기 脾陽의 鼓動으로 인해 運化를 얻는다. 지금 有形의 氣衝이 있다면 반드시 噯氣를 함으로써 통하게 하여야한다. 丹溪가 이르기를 "上升之氣는 肝으로부터 出하므로 肝木이 侵犯脾胃한 것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納穀하는데 하루가 넘어 이로 인해 上湧出口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昔賢은 말하기를 噎膈反胃는 본래 陰枯陽結로 말미암아 上逆不下함으로써 腸中의 津이 말라 潤濡하지 못하고 腕中氣痺不行하여 점차 窄隘에 이른 것이니 不堪容物을 關格이라 일컬으며 極難治療라 하였다. 諸方을 열람하고 찾아보니 或은 鎭墜殺蟲함으로써, 或은 辛香耗氣함으로써 氣洩함을 알지못해 津液이 枯渴된 것이고, 鎭重하면 淸陽이 평안해진다고 하였다. 近代에 喩嘉言은 申明으로 法律을 삼으라고 하였다. 무릇 反이라는 것은 陰陽錯綜을 이름으로 順이 아닌 逆의 이론이다. 헛되이 補漏法을 쓰면 해가 갈수록 生氣가 奪하게 되니, 나는 春木에 生發의 기운이 왕성한 때 病이 더해져 純陽之令으로 病이 劇해질 것을 두려워한다.

위의 例는 주로 七情 중 憂에 傷한 證候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憂情은 肺在志인 悲情과 脾在志인 思情의 합한 모습으로, 抑鬱氣機하여 脾肺에 영향을 미치며 氣沉의 형태로 주요 病變을 나타낸다. 즉 沈鬱 혹 痞塞하여 上下不通하게 하고 氣機不暢便會傷肺 進而影響及脾함으로서 少氣倦怠, 腹脹胸悶과 같은 症狀을 보이게 된다[15].

3.9. 尤在涇 醫案

尤怡의 字는 在涇이고 號는 拙吾이며,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의 著作인 傷寒貫珠集과 金匱要略心典은 張仲景著述에 대한 心得과 發揮를 기록한 것으로, 그 註釋은 先人의 說을 滙集하여 傷寒과 雜病을 論述하였으며, 條理가 明確하고 簡要하여 仲景의 學을 연구하는데 영향을 준 著述이다.

<神志>

@ 原文 : 驟爾觸驚. 神出於舍. 舍空痰入. 神不得歸. 是以有恍惚昏亂等證. 治當逐痰. 以安神藏.

驚悸易泄. 腰疼足軟. 有似虛象. 而實因痰火. 蓋脈不弱數. 形不枯瘁. 未可遽與補也.

@ 解說 : 驟爾觸驚하여 神이 舍하는 곳으로부터 나가고, 그 神이 머물다 나간 빈곳에 痰이 入하게 되면 神不得歸하게된다. 이로써 恍惚昏亂 等證이 생기게되니, 치료법은 마땅히 逐痰함으로써 安神藏하게 하는 것이다. 驚傷證候는 心과 肝膽胃로 나타나며, 대개 驚의 發生은 外로

부터 入하여 생기게 된다. 즉 外有所觸하면 心忽一虛하여 神氣失守함으로서 痰涎着于心包絡之間한다고 하였다[15].

驚悸易泄 腰疼足軟의 증상은 흡사 虛象처럼 보이나 실상은 痰火로 인한 것이다. 대개 脈不弱數하고 形不枯瘁하니 補法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

<頭痛>

@ 原文 : 火升頭痛. 耳鳴. 心下痞滿. 飯後卽發. 此陽明少陽二經痰火交鬱. 得食氣而滋甚. 與陰虛火炎不同. 先與淸理. 繼以補降.

頭疼偏左. 耳重聽. 目不明. 脈寸大尺小. 風火在上. 姑爲淸解.

@ 解說 : 火升頭痛 耳鳴 心下痞滿 飯後卽發의 증상은 陽明少陽 二經에 痰火交鬱하여 생긴 것이다. 밥을 먹게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니, 陰虛하여 火炎이 생기는 것과는 같지 않다. 먼저 淸理하고 이어서 補降의 방법을 쓴다. 陰虛陽亢하여 發生하는 頭痛이 아니라 積熱火氣上攻하여 나타나는 頭痛으로 생각된다.

頭疼偏左 耳重聽 目不明하고 脈이 寸大尺小한 것은 風火在上하여 된 것이니 淸解의 치료방법을 사용한다. 偏頭痛은 左右의 구분이 있으니, 右偏頭痛은 屬痰屬熱이라 하였고 左偏頭痛은 屬風屬血虛라고 하였다[6].

3.10. 吳鞠通 醫案

吳瑭의 字는 鞠通이며 溫病學派의 대표적인 人物중 하나로 溫病學說을 더욱 體系化하고 完整시켰다. 그는 醫學上에 있어서 위로는 內經과 傷寒論, 아래로는 葉天士의 著述에 영향을 받았다. 溫熱病의 三焦辨證理論을 제시하고 淸熱養陰 등의 治療方法을 闡述하였으며, 溫病을 治療하는 方劑를 많이 擬訂하였다. 吳鞠通은 溫病을 風溫, 溫熱, 溫疫, 溫毒, 暑溫, 濕溫, 秋燥, 冬溫, 溫瘧 등의 九種으로 나누어, 葉天士가 衛, 氣, 營, 血로 分證한 것에 대해, 上, 中, 下 三焦의 순서에 따라 分別 論述하였다.

<癲狂>

@ 原文 : 大狂七年. 先因功名不遂而病. 本京先醫市醫儒醫已歷不少. 旣而徽州醫杭州醫蘇州醫湖北醫. 所閱之醫不下數十百矣. 大槪補虛者多. 攻實者少間而已時不旋踵而卽發. 余初診時. 見其蓬首垢面. 下面俱赤. 衣不遮身. 隨著隨毁. 門牖粉碎. 隨釘隨拆. 鐐靠手足. 外有鐵索鋼鎖大石磨盤上. 言語之亂. 形體之羸. 更不待言. 細詢其情. 每日非見婦人不可. 婦人不願見. 彼竟鬧不可言. 叫號聲嘶. 哀鳴令人不忍聞. 只得令伊姬妾强侍之. 然後少安. 次日仍然. 無一日之空. 診其脈六部弦長而勁. 余曰此實症. 非虛症也. 於是用極苦以瀉心膽二經之火. 瀉心者必瀉小腸. 病在臟. 治其腑也. 膽無出路. 借小腸以爲出路. 亦必瀉小腸也.

陽幷於上則狂. 先以極苦折其上盛之威. 左脈洪大. 膽無出路. 瀉膽者. 必瀉小腸. 心主言. 多言者必瀉心. 瀉心者亦必瀉小腸. 小腸火腑. 非苦不通.

@ 解說 : 大狂한지 七年, 처음에는 功名不遂로 인해 病이 생겨 北京의 先醫 市醫 儒醫 등 치료를 해보지 않은 의사가 적었으며, 이미 徽州醫 杭州醫 蘇州醫 湖北醫 등 찾아본 의사가 數十 數百名 이상 이었다. 대개 補虛法을 사용한 者가 많았으며 攻實法을 쓴 사람은 적었는데 조금 차도가 있다가 나을 때쯤 돼서는 다시 재발하였다. 내가 初診하였을 때에 머리는 산발을 하여 풀어헤치고 얼굴은 더러웠으며 아랫도리는 벗은 상태였다. 옷으로 몸을 가리게 할 수가 없었는데 입히면 이를 찢어 버렸다. 문과 창도 부수었는데 고쳐놓으면 다시 부수어 버렸으므로 족쇄를 채워 鐵索을 세운 큰 盤石위에 가두어 버렸다. 혼란스런 말과 바싹 마른 몸을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 정황을 자세히 물어보니 每日 婦人을 만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였는데 婦人이 만나기를 願치 않으면 마침내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소리쳐 절규하다가 목소리가 쉬었으며 애절한 소리는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다만 그의 妾으로 하여금 억지로 상대하게 하여야 조금 안정할 수 있었다. 다음날도 여전히 이와 같았으며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었다. 診脈을 해보니 六部가 弦長而勁하였다. 나는 이를 實症이지 虛症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때에는 極苦한 약을 써서 心膽二經之火를 瀉하는데 瀉心者는 반드시 瀉小腸한다. 病이 臟에 있으면 그 腑를 治하기 때문이다. 膽은 出路가 없어 小腸을 빌어 出路를 삼으므로 역시 반드시 瀉小腸해야 하는 것이다.

陽幷於上則狂하므로 먼저 極苦한 藥으로 그 上盛之威

를 折한다. 左脈洪大한 것은 膽無出路한 것이니, 瀉膽者는 반드시 瀉小腸한다. 心主言이니 말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瀉心하여야하고, 瀉心者 역시 必瀉小腸하여야 한다. 小腸은 火腑이므로 苦味가 아니면 不通한다.

苦味는 沈靜作用이 있어, 下劑는 모두 苦味性 物質로서 苦寒降泄이 서로 관련되어 下熱, 沈靜, 降泄의 효력이 있다. 또한 心臟의 抑壓神經과 心臟에 작용하여 勞作을 輕減하며 心臟을 安靜回復하게 한다[8]. 心膽은 相通[16]하며 心小腸은 表裏關係를 이루고 있어, 瀉小腸함으로서 心膽의 火를 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11. 曹仁伯 醫案

<頭痛>

@ 原文 : 脈弦數大. 苔厚中黃. 頭痛及旁. 陽明濕熱. 挾膽經風陽上逆也.

高巔之上. 惟風可到. 到則百會腫疼且熱. 良以陰虛之體. 陰中陽氣. 每易隨之上越耳.

@ 解說 : 脈이 弦數大하고 苔가 厚中黃하며 頭痛이 두루 있으면 陽明濕熱에 膽經의 風陽이 挾하여 上逆된 것이다.

巔頭痛은 생각건대 風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 風이 이르게 되면 百會가 腫疼且熱한다. 陰虛之體에서 많이 생기며 陰中의 陽氣가 매번 上越할 때마다 나타나게된다.

3.12. 張千里 醫案

張千里는 字는 夢廬 또는 子方이라고 하며, 著書에 千里醫案이 있다.

<癲厥>

@ 原文 : 驚氣通於肝. 肝熱則膽寒而胃不和. 痰涎沃膽. 風木內震. 以致心悸頭眩耳鳴. 心神不能自主. 甚或運仆搖搦. 此皆內風與痰涎搏擊之故也. 脈象弦小滑. 宜溫膽以熄風. 和胃以滌濁. 病經多年. 恐難全愈.

前年夏怒氣傷肝. 肝膽風木. 挾痰火內擾. 致發癲症. 迄今二年餘. 其神呆善怒. 默處寡言. 多吐乾嘔等症. 雖皆減而未淨盡. 近月來神思困倦. 飮食少進. 大異常時. 脈遲弱虛濫. 惟右寸獨大. 舌苔滑白. 邊白胖. 中心黑膩. 微寒而熱. 乾咳耳鳴. 心虛少寐. 手臂動卽振掉. 此又有風燥之火. 上刑肺金. 中刦腸胃. 宜暫進滋肺養胃. 洩風化燥方法. 以化客感.

素有痰火. 風發癲厥. 居平眩悸耳鳴. 消渴便難. 肺胃津氣旣虛. 則痰濕愈益凝聚. 今濕令氣蒸. 胸次欠舒. 知飢不運. 足痠脈滑. 乾欬音澁. 宜滋養肺胃津氣. 以化痰濕.

@ 解說 : 驚氣가 肝에 通하고 肝熱한즉 膽寒而胃不和하니 痰涎이 膽으로 들어가 風木이 內震하여 心悸 頭眩 耳鳴의 증상이 나타나고, 心神不能自主하게되면 甚한즉 運仆搖搦의 증상이 나타나니 이것은 모두 內風과 痰涎이 서로 搏擊하기 때문이다. 脈象이 弦小滑하면 마땅히 溫膽으로 熄風시키고 和胃로써 滌濁시키면 되는데, 病이 여러 해가 경과되면 완치되기가 어렵다.

前年 夏節에 怒氣傷肝하였다. 肝膽風木이고 挾痰火하게 되면 內擾하여 癲症에 이르게 된다. 마침내 二年餘에 이른 지금 神呆善怒 默處寡言 多吐乾嘔 等症이 나타나 비록 모두 減해졌으나 아직 깨끗하지 않고, 近月에 이르러 神思困倦 飮食少進의 증상이 있으면서 크게 異常時 脈遲弱虛濫하나 오직 右寸獨大하고 舌苔가 滑白 邊白胖 中心黑膩하면서 微寒而熱 乾咳耳鳴 心虛少寐 手臂動卽振掉의 증상이 나타나니 이것은 風燥之火가 원인이 되어 上刑肺金 中刦腸胃하여 생기는 것으로 마땅히 暫進的으로 滋肺養胃 洩風化燥의 方法으로 치료한다.

평소 痰火가 있고 風이 癲厥을 發하게 되면 평상시에 어지러움과 두근거림 귀울림 증상이 나타나면서 消渴과 大便 보기가 힘들어지는데, 이것은 肺胃津氣가 이미 虛한즉 痰濕이 더욱 凝聚되어 지금 濕令氣蒸함으로써 胸次欠舒 知飢不運 足痠의 증상이 나타나고, 脈滑하고 乾欬音澁하니 마땅히 滋養肺胃津氣하여 化痰濕시키도록 한다.

위의 醫案은 癲厥을 일으키는 여러 기전을 설명하면서 모두 痰이 중요한 發病因子가 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大綱의 病機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驚大恐의 情志失常에 의해 損及肝腎하고 肝風躁動하여 觸及痰涎함으로서 上蒙淸竅 壅閉神明하여 나타나는 癲證의 例와, 飮食不節하여 脾胃損傷하고 水濕聚則爲痰함으로서 阻塞經絡 痰迷腦竅하여 나타나는 例가 있고, 發熱極盛하여 灼津爲痰함으로서 나타나는 癲證이 있을 수 있다. 또한 肝風에 挾痰涎하면 더욱 심한 症狀을 발현시킨다고 하였다. 痰이

原因이 된 癎의 脈은 滑數한 것이 특징이다[14].

3.13. 王旭高 醫案

王泰林의 字는 旭高이고 晩號는 退思居士이다. 처음에 瘍科로 이름을 떨치다가 후에 內科를 專門으로 하여 古方의 化裁에 能하였는데, 醫理는 主로 張仲景을 따랐다. 주요 著述로는 西溪書屋夜話錄, 醫方歌訣串解, 環溪草堂醫案 등이 있다.

<神志>

@ 原文 : 上年夏季. 痰火迷心. 神呆語亂. 治之而愈. 至今復發. 脈浮小弱. 舌心紅而苔薄白. 語言錯亂. 哭笑不常. 憑脈而論. 似屬心風. 蓋由風入心經. 蘊熱蒸痰所致. 用本事獨活湯法.

情志鬱勃. 心肝受病. 神思不安. 時狂時靜. 時疑時怯. 心邪傳肺. 則心悸不寐而欬嗽. 肝邪傳膽. 則目定而振慄. 其實皆鬱火爲患也. 擬淸心安神壯膽爲主. 平肝和脾佐之.

寡居十載. 愁惕苦心. 牙齦出血. 有時若癎. 其病已久. 玆一月前猝遭驚恐. 遂神糊語亂. 口吐紫血. 腹脹不食. 兩脈糢糊. 難以捉摸. 此乃驚動肝陽. 神魂擾亂. 血隨氣逆. 是卽薄厥之屬. 今兩足常冷. 陽升於上. 急以介類潛陽. 重以鎭怯. 冀其厥止再商.

@ 解說 : 작년 夏季에 痰火迷心하여 神呆語亂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하여 나았으나 至今다시 再發을 하였는데, 脈浮小弱하고 舌心紅而苔薄白하며 語言錯亂 哭笑不常의 증상이 있었다. 脈을 보고 論하여보니 心風에 속한 것으로 대개 風이 入心經함으로 말미암아 蘊熱蒸痰한 所致이다. 獨活湯을 이용하여 치료법을 잡는다. 心風이란 癲證의 심한 상태보다는 그 症狀이 가벼운 것을 말한다. 外風邪의 侵入에서 오는 病이 아니고 精神的인 原因에서 오는 心病이며, 그 症狀이 바람과 같이 變化無雙하므로 心風이라 한 것이다. 原因은 七情五志久逆不遂, 痰迷心竅則成心風 屬虛者多, 志願高而不遂所欲 등이 제시되고 있다[6].

情志鬱勃하게되면 心肝受病하여 神思不安 時狂時靜 時疑時怯의 증상이 나타나고, 心邪傳肺한즉 心悸不寐而欬嗽의 증상이 나타나고, 肝邪傳膽한즉 目定而振慄의 증상이 나타나니 이러한 증상은 모두 鬱火로 인하여 병이 되는 것이다. 淸心 安神 壯膽시키는 치료를 爲主로 하고 平肝和脾의 치법을 보조로 하여 치료한다. 鬱火는 氣鬱化火의 표현으로, 肝氣鬱結日久化火하여 나타나는 것이다[15]. 心은 藏神하여 五臟六腑之大主가 되어 人體情志活動을 주도한다[17]. 그러므로 心肝이 七情所傷의 주된 症狀이 표현되는 臟器로 생각된다.

홀로 10년을 지내니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괴롭히고 牙齦出血이 있으면서 때때로 癎症이 나타나는 病이 이미 오래되었다. 이에 一個月前 갑자기 驚恐을 만나 神糊語亂 口吐紫血 腹脹不食의 증상이 나타났다. 兩脈을 보니 糢糊하고 더듬어 脈을 잡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驚으로 인해 肝陽이 動하여 神魂擾亂한 것이고, 血隨氣逆함으로서 나타나는 것인즉 薄厥에 屬하는 증상이다. 지금 兩足常冷하면서 陽升於上한 것이니 急히 潛陽시켜 怯먹은 것을 鎭靜시키고 바라건대 그 厥한 것을 그치게 해야한다. 素問·生氣通天論에 "陽氣者 大怒則形氣絶 而血菀於上 使人薄厥"이라 하였다[18]. 이는 精神刺戟으로 인해, 陽氣를 急亢시켜, 血이 氣를 따라 逆上해서, 血液을 頭部에 鬱積케하여, 돌연 昏厥을 發하는 病症을 말한다[12].

<頭痛>

@ 原文 : 情懷鬱勃. 肝膽風陽上升. 右目昏蒙. 左半頭痛. 心餡不寐. 飢而善食. 內風掀旋不熄. 痛勢條忽無定. 營液消耗. 慮其痙厥. 法以滋營養液. 淸熄肝陽. 務宜暢抱. 庶克臻效.

再診, 服滋陰和陽法. 風陽稍熄. 第舌心無苔. 心餡善飢. 究屬營陰消爍. 胃虛而求助於食也. 議滋柔甘緩.

@ 解說 : 情懷鬱勃하여 肝膽의 風陽이 上升하게되면 右目昏蒙 左半頭痛 心餡不寐 飢而善食의 증상이 나타나고, 內風이 쉼 없이 掀旋함으로써 痛勢가 定해진 곳 없이 갑자기 나타나게된다. 營液消耗하면 痙厥의 발생까지 염려해야 한다. 滋營養液, 淸熄肝陽으로써 治法을 정해 안에 鬱滯된 것을 풀어내게 되면 능히 효과를 볼 것이다. 痙症의 發生은 津液의 耗傷으로 筋脈이 濡養을 받지 못해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6].

다시 진찰하여 滋陰和陽의 藥을 복용시켜 風陽을 그치게 한다. 舌心無苔 心餡善飢의 증상이 있으면 營陰消爍으

로 인한 것인지 胃虛로 인해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인지를 연구하여야 한다. 滋柔甘緩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한다.

3.14. 趙海仙 醫案

<癲狂癇>

@ 原文 : 肝旺膽虛. 痰熱內擾. 遂令神思恍惚. 語言多錯. 笑哭無常. 甚則發狂. 脈象沈細而滑. 已經九月. 書云. 癲症是也. 病久根深. 難以速效. 非徐圖不可.

自患癇症. 已歷多年. 邇來愈發愈甚. 語言多錯. 神思恍惚. 由癇而轉癲. 根蒂過深. 徒恃藥餌無濟也. 姑擬一方以觀進退.

五臟有五癇. 惟羊癇屬肺金. 百由金虛不能制木. 木旺而反刑金. 故成羊癲. 發時右邊爲甚. 延及四年之久. 根蒂已深. 今非煅煉諸方. 不克却病.

抑鬱傷肝. 驚恐傷膽. 熱痰內蘊. 記誤多錯. 以致神志恍惚. 脈象弦滑. 擬方以緩圖之.

驚恐傷膽. 膽虛蘊痰. 肝傷化風. 釀成癇症. 已歷十年之久. 近來三年尤甚. 書云癇者間也. 因其發有間斷也. 脈象虛弦而滑. 病久根深. 非徐圖不可.

懷珠六月. 卒然神昏仆地. 牙關緊閉. 筋抽肢搖而蠕動. 經所謂暑癇是也. 擬方速開淸竅. 庶有轉機. 否則防厥陷致變.

肝旺膽虛. 痰熱內擾. 遂致言語錯亂. 神思恍惚. 哭笑無常. 噯噫頻仍. 癲症已著矣.

@ 解說 : 肝旺膽虛로 痰熱內擾하여 神思恍惚 語言多錯 笑哭無常의 증상이 나타나고 甚한즉 狂症이 發하였다. 脈象이 沈細而滑하고 이미 병을 앓은지 九個月이 지났다. 書에 이르기를 이러한 병을 癲症이라 하였고, 病이 오래되고 뿌리가 깊어서 速效를 보기 어려우니 서서히 도모하지 않으면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癲疾의 病機는 痰鬱氣結하여 痰阻于心竅한 것이 원인이 되며 痰은 陰邪가 되어 患者의 症狀表現 역시 沈默痴呆 靜而多悲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11]. 이런 癲狂의 症狀을 西洋醫學에서는 精神分裂症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診斷에 있어 최소한 病의 經過가 6個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 된다[7]. 위에서 病의 經過가 9個月에 이른다는 점이 또 다른 診斷의 요점이 되는 것 같다.

癇症을 앓은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발작 후에 나았다가 다시 심하게 발작되곤 하였으며 語言多錯 神思恍惚의 증상도 있었다. 癇으로 말미암아 癲症으로 증상이 바뀌어 나타나기도 하니 병의 뿌리가 너무 깊어 믿고 쓸만한 약이 없다. 헤아려 一方을 사용함으로써 그 병의 進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五臟에는 각기 五癇이 있으니 羊癇은 肺金에 속한다. 金虛로 말미암아 能히 木을 制壓하지 못하고 도리어 木이 旺盛해 金을 刑하는 고로 羊癲을 이룬다. 발작이 있게되면 오른쪽으로 더 심하게 나타난다. 四年이 지나도록 병이 있게되면 뿌리가 이미 깊어져 이제 煅煉諸方이 아니면 能히 病을 물리치지 못한다. 癇에 대한 分類는 宋代 嚴用和의 濟生方에서부터 비롯되며, 그 전시대까지 癇의 개념은 癲에 포함되어 있었다. 濟生方에서는 癇의 發作時에 나타나는 短叫聲을 중심으로 五癇을 구분했으며 그 중 羊癇은 脾土에 속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6], 그에 대한 잘못된 기록으로 생각된다.

抑鬱傷肝하고 驚恐傷膽하면 熱痰內蘊하여 記誤多錯의 증상이 神志恍惚에 까지 이르게 된다. 脈象이 弦滑하게 나타나니 處方을 헤아려 서서히 도모한다.

驚恐傷膽하면 膽虛蘊痰하게되고 肝傷化風하여 癇症을 이루게 된다. 이미 십년 이상 病을 앓아왔고 최근 삼년 동안 병이 더 甚해졌다고 하였다. 書에 이르기를 "癇은 間이다. 발작이 있으면 그 사이에 끊어짐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脈象이 虛弦而滑하면 病이 이미 뿌리가 깊은 것이니 서서히 도모함이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

六月에 갑자기 神昏仆地 牙關緊閉 筋抽肢搖而蠕動의 증상이 나타났다. 經에 이르기를 暑癇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速開淸竅시키는 약을 빨리 써야하며 늦게되어 厥症을 막지 못하게 되면 증상이 변하여 다른 병이 나타난다. 暑癇은 暑病의 하나로 더위를 먹은 뒤에 갑자기 열이 몹시 나고 의식이 흐려지면서 痙攣이 나타나는 病症을 말하는데[5], 西洋醫學에서는 이를 熱射病(heat stroke)[22]의 범주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肝旺膽虛하여 痰熱內擾하게되면 言語錯亂 神思恍惚 哭笑無常 噯噫頻仍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니 癲症인 것이 분명하다.

<梅核氣>

@ 原文 : 操持過度. 抑鬱傷肝. 肝臟厥陰之氣. 由胃系上升于喉. 喉間不利. 狀如物阻. 咯之不出. 嚥之不下. 書云梅核氣是也. 速當掃盡塵氛. 自開懷抱. 庶可與藥餌並濟.

肝肺之氣不舒. 升降之機紊序. 上逆于會厭之間. 致咽嗌爲之不利. 狀如物阻. 咯之不出. 書云梅核氣是也. 擬方善圖.

@ 解說 : 操持過度하여 抑鬱傷肝하면 肝臟厥陰의 氣가 胃系를 따라 上升하여 喉에 까지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喉間不利한 것이 마치 어떤 형태의 물건이 막고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 뱉으려하여도 나오지 않고 삼키려하여도 넘어가지 않았다. 書에 이르기를 "梅核氣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였다. 속히 그러한 기분을 없애버려야 하니 환자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도록 하고 아울러 약을 함께 주어 치료하도록 한다.

肝肺之氣가 不舒하여 升降의 기틀이 문란해졌을 때 氣가 會厭之間으로 上逆하게 되면 咽嗌이 不利하게되어 마치 어떤 형태의 물건이 막고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 뱉어버리려 하지만 나오지 않는 것을 書에 梅核氣라 일러 놓았다. 梅核氣의 病因病機는 情緖障碍로 氣機不利하여 肝鬱脾滯하고 運化失司가 되어 津液不得輸布 積聚成疾함으로서 痰氣互結于咽喉而發이며[11], 西洋醫學에서는 이를 히스테리球(globus hystericus)라고 한다. 히스테리구는 히스테리성 전환증상의 하나로 원인적 인자로 추정되고 있는 것은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좌절감 또는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는 심리적 요소들이다[19].

3.15. 王九峯 醫案

<肝鬱>

@ 原文 : 憂思忽鬱. 最傷肝脾. 木性條達不暢則仰. 溼土敦厚. 不運則壅. 壅氣無以流貫諸經. 循環衛營. 肝乃腎子. 子傷則盜母氣. 無以自養. 致令水虧於下. 水不濟火. 灼陰耗血. 筋失營養. 瘰癧凝結於項側之右. 脈來細數無神. 潰久膿清不斂. 法當壯水生木. 益氣養營. 恬淡無爲. 以舒神志. 方克有濟.

木性條達. 不揚則仰. 土溼敦阜. 不運則壅. 憂思抑鬱不解則傷神. 肝病必傳脾. 精虛由神怯. 情志素違. 氣血交錯. 夫心藏神. 脾統意. 二經俱病. 五內交虧. 心爲君主之官. 脾乃後天之本. 精因神怯以內陷. 神因精怯而無依. 是以神搖意亂. 不知所從. 動作云爲. 條然非昔. 宜溫和之品培之.

@ 解說 : 憂思忽鬱하면 最傷肝脾하니 木은 條達의 성질이 있는데 不暢하게되면 仰하고 溼土는 敦厚한데 不運하게된즉 壅한다. 壅氣하면 모든 經絡을 流貫시킴으로써 營衛를 循環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肝은 腎의 子이니 子傷한즉 盜母氣하여 無以自養함으로써 水虧於下에 까지 이르게된다. 水不濟火하니 灼陰耗血하게되어 筋이 營養을 받지 못하게 된다. 瘰癧이 뒷목 오른쪽에 뭉쳐 나타나고 脈은 細數無神하다. 潰瘍은 오래되어 膿이 나오면서 없어지지 않는다. 치료법은 마땅히 壯水生木 益氣養營 恬淡無爲 以舒神志하는 것이다.

木은 條達하는 성질이 있어 不揚한즉 仰하고 溼土는 敦阜하므로 不運한즉 壅한다. 憂思抑鬱하여 不解한즉 傷神한다. 肝病은 반드시 脾에 傳하고 精虛는 神怯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情志가 본디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氣血이 交錯한다. 무릇 心은 神을 藏하고 脾는 意를 統하니 二經이 모두 病들면 五臟이 서로 虧損하게된다. 心은 君主之官이요 脾는 後天之本이니, 精은 神怯으로 因해 內陷하고 神은 精怯으로 因해 의지할 바가 없게되므로 이로써 神搖意亂하여 말한 것과 이미 했던 행동을 알지 못함이 옛날과 다르다. 마땅히 溫和한 藥品으로 치료한다. 鬱證의 主要 病機는 肝失條達과 心神不寧을 통해 나타난다. 肝失條達은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情志過極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며 七情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일단 情志過極이 되면 傷脾, 傷心, 傷腎한다고 하였다[20].

<狂癲>

@ 原文 : 憂思抑鬱. 最損心脾. 心爲君主之官. 神明出焉. 脾爲諫議之官. 智周出焉. 二經受病. 五內乖違. 腎水下虧. 不能上濟. 火盛灼金. 金虧不能平木. 木復生火. 二火交併. 清肅不行. 同氣相求. 必歸於心. 東垣以火盛必乘土位. 煎熬津液成痰. 痰隨炎上之性. 蔽障神明. 心神分馳. 莫能自主. 故心煩意亂. 不知所從. 動作云爲. 條然非昔. 前議鎭木清金. 瀉南補北. 諸症悉退. 脈來平調. 第火起作妄. 變幻不一. 宜

峻補其陰. 濟君相而行淸肅之令. 調治智意. 不容上擾君主. 更益以鎭重之品. 宣其氣血. 各守其鄕. 庶免來復之患. 擬惠民和劑局方歸脾丹加味主之.

卒然跌仆. 流涎時醒者. 號曰癲癎. 忽然寒熱. 熱甚昏冒者. 名爲時厥. 脈來弦大. 心火肝陽上升. 化風夾痰爲患. 上達心胞. 症延二載有餘. 積勞積鬱積痰爲患. 治之甚難.

@ 解說 : 憂思抑鬱하면 心脾를 가장 많이 傷하게 하니, 心은 君主之官으로 神明이 出하고 脾는 諫議之官으로 智周가 出한다. 二經이 病들면 五臟이 乖違하고 腎水下虧함으로써 능히 上濟하지 못하게 되니 火가 盛하여 灼金하게된다. 金虧하면 능히 平木하지 못해 木이 다시 火를 生하므로 二火가 서로 併合하게된다. 淸肅作用이 行하여지지 못해 同氣相求하여 必歸於心하게된다. 東垣은 火가 盛하면 반드시 土位를 乖戾하여 津液을 煎熬시켜 痰을 이루고, 痰은 火의 炎上하는 性質을 따라서 神明을 蔽障하게 되니 心神이 分別되어 自主하지 못하는 까닭에 心煩意亂不知所從 動作云爲 倏然非昔한다고 보았다. 앞에서는 鎭木淸金 瀉南補北하면 諸症이 모두 물러가고 脈이 平調해진다는 것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火가 일어나서 妄動하고 變幻이 한결같지 않으면 마땅히 그 陰을 峻補하여 君火相火를 濟하기 위해 淸肅之令을 行하고 智意를 調治하여 君主를 擾亂하게 함을 容納하지 않으며, 더욱 鎭重한 藥品으로 氣血을 宣通하며 그 鄕을 지키면 거의 來復의 患을 免할 수 있다. 헤아려보건대 惠民和劑局方의 歸脾丹加味方으로 치료한다. 狂症의 原因은 腎衰에 起因하기도 하는데, 腎主志하고 水火는 相反하는 것이므로 心火가 旺盛하면 腎水가 衰弱해져서 失志하므로 狂亂하게 된다. 怒는 肝之志이므로 火가 實하여 制金을 하면 金克木이므로 平木이 안되니 肝實하여 多怒하게 되어 狂症이 오게 된다고 하였다[6].

卒然跌仆하여 침을 흘리고 때때로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癲癎이라 한다. 忽然히 寒熱往來하였다가 熱이 甚해져 昏冒하는 것을 時厥이라 한다. 脈은 弦大하고 心火와 肝陽이 上升하여 風에 痰을 夾해 병이 된 것으로 위로는 心胞에 도달하며 이년이상 병이 유지되면 積勞 積鬱 積痰으로 병이 되어 더욱 治療하기 어렵다.

<怔忡>

@ 原文 : 經以喜怒傷氣. 寒暑傷形. 衝脈起於腎下. 出於氣衝. 夾臍上行. 至胸中而散. 衝脈動. 則諸脈皆動. 小腹屬厥陰. 厥陰肝也. 氣從小腹蠕動. 逆衝於上. 心慌意亂. 跳躍如梭. 腎不養肝. 氣失攝約. 皆根蒂之虧. 寡慾固是良謀. 更宜怙憺虛無爲妙. 豈可盡恃草木功能. 一暴十寒何益.

五液下虧. 二火上熾. 水不濟火. 陰不配陽. 綠昔年過服剋伐之劑. 腎陰受傷. 致見怔忡驚悸等症. 自服滋心之劑. 本是合理. 然治上者必求其下. 滋苗者必灌其根. 心爲致病之標腎爲受病之本. 不必治心. 當專補腎.

心爲君主之鄕. 腎爲藏水之臟. 火性炎上. 水體潤下. 水欲上升. 火欲下降. 水無以上升. 火何以下降. 水火不濟. 心腎不交. 是以心煩意亂. 不知所從. 宗氣上浮. 虛里次動. 脈來軟數無神. 有驚悸健忘之慮. 法當壯水潛陽爲主.

木鬱不伸. 剋制中土. 傳化失常. 津液凝結成痰. 內擾肝膽心胞之絡. 致有怔忡之患. 甚則驚悸. 莫能自主. 服培養心脾. 條達肝木之劑. 諸恙雖平. 未能如故. 今遠涉江漢. 志意多違. 飮食起居. 異於故土. 防微杜漸. 有成復之慮. 安不忘危. 必以寡慾澄心爲主. 土能培木. 水能生木. 必得水土平調. 則木無抑鬱動搖之患. 擬歸脾加減.

@ 解說 : 經에 喜怒는 氣를 傷하고 寒暑는 形을 傷한다고 하였다. 衝脈은 腎下에서 起始하여 氣衝에서 出하며 臍를 끼고 上行하여 胸中에 이르러 散하니 衝脈이 動하면 諸脈이 모두 動한다. 小腹은 厥陰에 屬하고 厥陰은 肝經으로 氣가 小腹을 따라 蠕動하여 위로 逆衝하면 心慌意亂하며 梭와 같이 跳躍하고 腎이 肝을 養하지 못하면 氣가 攝約함을 잃게 되니 모두 根蒂가 虧虛하기 때문이다. 寡慾이 진실로 좋은 방법이니 마땅히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일이지 어찌 草木의 효능에 의지하겠는가. 하루 햇볕을 쬐고 열흘을 춥게 한 것과 같으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五液이 虧虛하여 君火와 相火가 위로 熾盛하면 水가 火를 濟하지 못하고 陰이 陽을 짝하지 못하게 된다. 옛날에 剋伐한 藥을 過服함으로 인해 腎陰이 傷하면 怔忡 驚悸 等이 나타나게 되고 滋心하는 藥을 쓰는 것이 理致에 合當하지만 治上者는 반드시 求其下하여야 하므로, 싹을 자양하려면 반드시 그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하듯이 心에

이르러 병이 된 것은 標요 腎에 이르러 병이 된 것은 本이니, 心을 治療하는 것은 불가하고 오로지 腎을 補하는 것이 마땅하다.

心은 君主之鄕이 되고 腎은 藏水之臟이 된다. 火性은 炎上하고 水體는 潤下하며 水는 上升하고자 하고 火는 下降하고자 하니, 水가 上升함이 없으면 火가 어찌 下降할 수 있으리오. 水火가 濟하지 못하면 心腎이 不交하므로心煩意亂 不知所從의 증상이 나타난다. 宗氣上浮하여 虛里次動하며 脈이 軟數無神하면 驚悸 健忘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니 치료법은 마땅히 壯水潛陽을 主로 한다. 위의 怔忡의 症狀은 陰虛火旺하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陰虛하면 心火內生하여 心神受擾한 즉 心失所養함으로서 心悸한다고 하였다[15].

木이 鬱하여 舒暢하지 못하면 中土를 剋制하여 傳化失常하게되니 津液이 凝結됨으로서 痰을 이루고, 肝膽心胞의 絡을 內擾하여 怔忡에 이르며, 심한즉 驚悸의 증상이 나타나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培養心脾 條達肝木하는 藥을 服用하면 모든 근심걱정이 비록 平制되지만 전과 같지는 않다. 이제 江湖 한량을 보면 意志가 많이 어긋나있고 飮食起居가 옛날과 달라 고로 土가 異常을 맞게 된다. 작은 제방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점차 커져 다시 근심걱정이 많아지게 되며 편안하여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게 되니, 반드시 寡慾하고 心을 澄淸하는 것으로 치료의 主를 삼는다. 土는 능히 培木하고 水는 能히 生木하니 반드시 水土의 平調를 얻게되면 木이 抑鬱하고 動搖하는 근심이 없게 된다. 歸脾湯을 헤아려서 加減한다. 心悸는 心中悸動不安한 것을 이르는데 驚悸와 怔忡으로 구분된다. 驚悸는 驚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病情을 가지며, 怔忡은 無時悸動不安하여 비교적 무거운 病情을 가진다[15]. 위의 怔忡之患 甚則驚悸의 표현은 잘못된 기록으로 생각된다.

<驚悸>

@ 原文 : 大驚卒恐. 心神腎志交傷. 腎藏精. 恐則精怯. 精化氣. 怯則氣無以化. 心藏神. 驚則神亂. 化生精. 亂則精無以生. 是以心胸振動. 惶惶惕惕莫能自主. 陽統乎陰. 精本乎氣. 上不安者. 必由乎下. 氣虛者. 必因於精. 正以精氣互相之理. 君相資生之道也. 法當大補心腎. 仍須盡釋疑懷. 使氣歸精. 精歸化. 則神志安而病已矣.

心脾氣血素虛. 因驚恐致傷神志. 胸中振動不安. 時多恐畏. 甚則心煩意亂. 不知所從. 經言胃之大絡. 名曰虛里. 出於右乳之下. 其動應衣. 宗氣泄也. 心藏神. 腎藏志. 腎虛心脾失養. 神不安舍. 宗氣無根. 心腎乖離之危症也.

因驚恐而致病者. 主於肝膽. 因病而致生驚恐者. 屬乎心腎. 心爲君主之官. 端拱無爲. 相火代心行事. 相火藏於兩腎之間. 經言七節之旁中有小心. 卽其處也. 腎爲作强之官. 技巧出焉. 蓋人之動作云爲. 皆賴腎中之火. 此火一衰. 則精神昏昏形志頹殘. 而風痺痿厥等症. 所由生也. 今膽上卒然振動. 驚惕莫能自主. 旋竟上攻. 兩臂痿厥不收. 踰時而已. 脈數無力. 面色戴陽. 症勢頗類無根之火. 蓋非相火衰微. 乃悲思抑鬱. 致火不宣揚. 不能生土. 且南方卑溼. 脾土常虧. 旣失所生. 又素不足. 脾溼生痰. 溼痰生熱. 流注諸經. 變幻不一. 胃關於腎. 腎志不安. 腎志爲恐. 而蔽障於痰則悸. 譬如水滴火中. 則焰勃然而起. 故自膽下而上升兩臂. 正合七節之旨. 兩臂亦中土太陰. 陽明三部. 橫走於肝. 則脈不安. 肝主謀慮. 脾附於肝. 膽主決斷. 爲痰所擾則怯. 諸恙雖見於目. 前而變病已著於曩. 昔人年已半百. 而必少壯恃强之弊. 非一朝一夕之故. 其所由來者漸矣. 公議補脾腎運中樞. 以杜痰源. 省思慮. 益精神. 以舒志意. 方克有濟. 景岳言此爲不愼其初. 所以致病於後. 今病已及身. 而猶不知愼. 則未有能善其後者. 此言最切. 當宜留意焉.

@ 解說 : 大驚卒恐하면 心神과 腎志가 모두 傷한다. 腎藏精하니 恐하면 精怯하고, 精化氣하니 怯하면 氣가 化하지 못한다. 心藏神하니 驚하면 神亂하고, 化生精하니 亂하면 精의 生함이 없게 된다. 이로써 心胸이 振動하고 惶惶惕惕하여 스스로 주체하지를 못한다. 陽은 陰에 統攝받으며 精은 氣에 根本하니, 上이 不安한 者는 반드시 下로부터 말미암고 氣가 虛한 者는 반드시 精에 原因이 있으니 바로 精氣互相의 理致요 君相資生의 道가 된다. 마땅히 치료법은 心腎을 大補하고 疑懷를 모두 풀어서 氣로 하여금 精으로 돌아가게 하고 精으로 돌아가 化하게 하면 神志가 편안해져 病이 낫게된다. 醫法圓通에서 驚悸一證은 名異而源同이라고 하면서, 驚은 神氣之衰로 말미암아 不能鎭靜하는 것이고 悸는 水氣之擾로 말미암아 陰邪爲殃

한 것이라고 하였다. 血證論에서는 心火不足하면 氣虛而悸하고, 血不養心하면 神浮而悸한다고 하였다[20]. 즉 心神과 腎志의 虛衰로 驚悸의 症狀이 出現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心脾氣血이 平素에 虛한데 驚恐으로 인해 神志를 傷하면 胸中이 振動不安하며 때로 많은 恐畏感을 느끼게되고 甚하면 心煩意亂 不知所從의 증상이 나타난다. 經에 胃의 大絡을 虛里라고 하니 右乳之下에 出하는데 그 움직임이 옷에 전달되면 宗氣가 泄한 것이다. 心藏神 腎藏志하니 腎虛하고 心脾가 失養하면 神이 便安히 머무를 곳이 없고 宗氣가 根源할 곳이 없게 되어 心腎乖離의 危症이 된다.

驚恐으로 因하여 病이 된 者는 肝膽에서 主하고 病으로 因하여 驚恐이 생긴 者는 心腎에 속한다. 心은 君主之官으로 단정히 拱手하여 하고자함이 없고 相火가 心을 대신하여 일을 行한다. 相火는 兩腎의 사이에 藏하였으며 經에 "七節之旁中有小心"이라 하니 바로 그 곳이 相火가 머무는 곳이다. 腎은 作强之官으로 技巧가 出하니 대개 사람의 動作云爲는 모두 腎中之火에 힘을 입는 것이고 이 火가 衰하면 精神이 昏昏하고 形志가 頹殘하여 風痺痿厥等症이 말미암아 생긴다. 이제 膽上이 卒然히 振動하고 驚惕하여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마침내 上攻하여 兩臂가 痿厥不收하다가 時를 넘어 그치며 脈數無力 面色戴陽하는 症勢가 자못 無根之火와 유사하다. 대개 相火가 衰微한 것이 아니오 悲思抑鬱하여 火가 宣揚하지 못하고 土를 生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南方卑溼에 脾土가 항상 虧虛하여 이미 生할 바를 잃고 또한 本來의 氣가 不足하여 脾溼이 痰을 生하고 溼痰이 熱을 生하여 諸經에 流注하고 變幻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고, 胃는 腎의 關으로 腎志가 不安해지면 腎志는 恐이 되니 痰이 蔽障하면 悸가 된다. 비유컨대 물방울이 불 속에 떨어지면 불꽃이 勃然히 일어나는 것과 같다. 故로 膽下로부터 兩臂로 上升하여 七節의 가르침과 바로 合하니 兩臂 역시 中土太陰이다. 陽明三部가 肝에 橫走하면 脈이 不安해지고 肝은 謀慮를 주관하며 脾는 肝에 붙어있고 膽은 決斷을 주관하는데 痰이 擾하면 怯하여 모든 근심걱정이 눈앞에 나타나니 앞의 증상이 변하여 분명하게 병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昔人은 나이가 이미 半百이 되었지만 젊은이가 强함을 믿고 망령되게 행동하는 폐단이 지금과 같지 않아 그 병이 생기는 사람이 드물다. 公의 議論은 補脾腎하고 中樞를 運行하여 痰源을 막고 思慮를 적게 하며 精神을 補益하여 志意를 舒暢하게 하여서 바야흐로 능히 救濟함이 있으니, 景岳이 말하기를 이는 그 初期에 삼가지 않아서 병든 뒤에 병을 治療하는 法이거늘 이제는 病이 몸에 이미 이르렀는데도 오히려 삼가지 못하면 그 끝이 좋은 자가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이 가장 간절하니 마땅히 유의해야 한다.

<不寐>

@ 原文 : 腎爲眞陰之根. 統五內之精. 肺爲元氣之本. 司百脈之氣. 半產後陰傷精損. 陰不斂陽. 水不斂火. 精不化氣. 氣不歸精. 壯火食氣. 火灼金傷. 腎虛必竊氣於金. 金損必移枯於肺. 肺腎俱困. 他臟不免. 水不涵木. 肝病傳脾. 土不生金. 淸膸不降. 金不平木. 木復生火. 火性炎上. 上擾君火. 心煩意亂. 不知所從. 意夕無眠. 悔怒數起. 虛里穴動. 食減神疲. 前進壯水濟火. 補陰潛陽. 諸恙漸退. 依方進步. 爲丸治之.

眞陰下虧. 虛陽上越. 水火不濟. 心腎乖違. 五志過極. 俱從火化. 火愈熾. 水愈虧. 水不涵木. 曲直作酸. 陰不斂陽. 竟夕不寐. 甚至心煩意亂. 莫能自主. 心氣虛. 必因於精. 脈來弦數而軟. 復以六味三才. 加以介類潛陽之品. 專培五內之陰. 冀其精化氣. 氣歸精. 陰平陽祕. 精神乃治.

心腎兩虧. 自汗不寐. 服藥無效. 未能杜原. 汗爲心液外出. 腎陰不升. 心火不降. 心腎多疑多慮. 法當補坎. 冀其水火流濟.

脈來勁數. 按之則弦. 不知喜怒. 時多疑慮. 則生驚恐. 心膽自怯. 驚則氣亂. 傷於心也. 恐則精怯. 傷乎腎也. 心爲君主之官. 膽司中正之職. 附於肝臟短葉之下. 胆汁不滿. 肢冷不眠. 所服之方. 理路甚是. 請原手調治. 暫以十味溫膽湯主治.

不寐之因. 共十六條. 從無間日重輕. 互爲起伏之事. 惟少陽受病. 半表半裏乃間日擧發. 然少陽當在陽分入太陰. 縱或受病. 不能久踞. 今延綿數載. 未能霍然. 蓋因肝經積有肥氣. 與少陽互爲勾結. 少陽爲三陽之終. 厥陰爲三陰之盡. 甲乙同宮. 又得少腹極陰之所. 爲藏身之地. 而根蒂深矣. 經曰. 凡內傷者. 時作時止. 定正勝邪. 伏而暫止. 邪勝則復作而故劇

也. 陽明不和. 時作嘔逆. 太陰不運. 中陽氣憊. 皆被肝胆所累. 非脾胃之本病. 卽心陰不足. 腎氣不充. 亦平日之虧虛. 非致病之根本. 若非拔本塞源. 則時作時止. 安有已時. 惟受病已深. 其勢實足以勝氣而抗藥力. 非可旦夕奏功. 擬煎丸並投. 寓蕩滌於調養之中. 脾無形之氣. 自前陰而出. 有形之濁. 自後陰而出. 然後再爲調攝. 庶可安痊. 鄙見如斯. 敢質明眼.

不寐怔忡之症. 得於思慮驚恐. 其驚氣傷胆. 恐傷氣腎. 五志不伸. 必生痰聚飮. 飮聚氣阻. 下則胆氣不潔. 胆寒肝熱. 熱升於胃. 則心胸懊憹. 得飮稍安. 必湧吐清涎方適. 閱前方均調脾養心之劑. 未獲效機. 俱未論及胆胃二經. 旣悸在胃脘心下. 脈來兩關弦强搏指. 豈非明證. 書云水停心下則心悸. 又曰胃不和則臥不安. 正合經旨. 擬芩朮半夏湯和其陰陽. 兼猪胆汁爲足少陽之先導. 諒該有益.

@ 解說 : 腎은 眞陰의 根本이 되고, 五臟의 精을 統率한다. 肺는 元氣의 根本이며, 百脈의 氣를 조정한다. 半產後 陰이 傷하고 精이 損傷되어 陰이 陽을 거두어들일 수 없고 水는 火를 거두어들일 수 없어 精이 氣로 化하지 못하고 氣가 精으로 歸하지 못해 壯火가 氣를 食하여 火가 金을 灼傷함으로 腎이 虛하면 반드시 金에서 氣를 훔치고 金이 損傷되면 반드시 肺로 옮겨가 마르게 한다. 肺腎이 모두 困하니 他臟도 이를 免치 못하고 水不涵木으로 肝病이 脾로 傳해 脾土는 肺金을 생하지 못하고 肅降作用도 하지 못하여 金은 木을 平하지 못하게되고 木은 다시 火를 生해 火가 炎上하게된다. 위로 君火를 어지럽혀 心煩意亂하고 따라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저녁인지 의심하고 잠이 들지 못하며, 後悔하고 노여워하며 자주 깨기 때문에 虛里穴 부위가 動하여 食慾이 減退되고 精神이 피로하니 먼저 壯水濟火 補陰潛陽하면 모든 근심이 점차 물러나게 된다. 方에 의거하여 치료하고 더 나아가 丸으로 治療한다.

眞陰下虧하면 虛陽이 上越하여 水火가 不濟하니 心腎이 어그러져 五志가 過極하고 모두 좇아 火로 변화한다. 火는 더욱 熾盛하고 水는 더욱 虧損되어 水不涵木하여 酸味를 만들며, 陰은 陽을 거두지 못해 저녁인줄 알아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甚하면 心煩意亂하니 스스로 능히 주체하지를 못한다. 心氣가 虛한 것은 반드시 精으로 因한 것이며 脈은 弦數하면서 軟하게 오니 六味三才로써 회복시키고 潛陽하는 類의 藥을 加하여 五臟의 陰을 增加시키도록 한다. 그 精을 더하여 氣로 化하고 氣는 精으로 歸하니 陰平陽秘로 精神이 이에 治療된다.

心腎이 둘다 虧損되면 自汗不寐하니 藥을 服用해도 無效한데 能히 根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汗은 心液이 外出하는 것이고, 腎陰이 不升하고 心火가 不降하여 心腎이 많이 疑心하고 思慮한 것이니 마땅히 坎을 補하여 그 水火流濟를 더하도록 해야 한다.

脈이 勁數하고 按하면 弦하다. 喜怒를 알지 못하고 때때로 疑心하고 思慮한즉 驚恐이 生하고 心膽이 스스로 怯을 내어 놀라면 氣亂하여 心을 傷하게되며, 두려워하면 精怯으로 腎을 傷하게된다. 心은 君主之官이고 膽은 中正之官의 직책을 수행하여 肝의 短葉 아래에 붙어있다. 胆汁이 充滿하지 못하면 四肢가 冷하고 잠을 자지 못한다.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심해져 치료해줄 것을 요청 받아 十味溫膽湯으로 治療해 주었다.

不寐의 原因은 모두 十六條인데 間日에 病이 무거웠다 가벼웠다 하는 起伏이 없되 오직 少陽이 病들면 半表半裏이므로 間日에 病이 發生하게 된다. 少陽은 陽分에서 太陰으로 들어가는 곳에 해당하므로 或 病이 들어도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延綿히 수년동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대개 肝經의 積으로 인하여 肥氣가 생겨서 少陽과 더불어 서로 勾結하기 때문이니 少陽은 三陽의 終이 되고 厥陰은 三陰의 마침이 되어 甲乙이 同宮하게 되고 또한 少腹은 極陰의 장소로서 藏身의 地가 되어 根蒂의 관계가 된다. 經에 이르기를 內傷者는 時作時止하니 正氣를 定하여 邪氣를 勝하면 潛伏하여 잠깐 그치고 邪氣가 이기면 다시 發作하는 고로 증상이 심해진다. 陽明不和하면 時作嘔逆하고 太陰이 不運하면 中陽氣憊하니 모두 肝膽이 累를 끼친 것이지 脾胃의 本病은 아니다. 즉 心陰不足하고 腎氣不充 하면 역시 平日의 虧虛일뿐 致病의 根本은 아니니 만약 拔本塞源하지 않으면 時作時止하여 어찌 그치는 때가 있겠는가. 오직 病이 이미 심해졌으면 그 세력이 實해져 족히 正氣를 이기고 藥力이 저항하므로 아침저녁의 짧은 時間에 奏功할 수 없고, 煎과 丸을 헤아려 같이 投與하며 調養하는 가운데 蕩滌하면 脾의 無形한 氣는 前陰으로 나오고 有形의 濁은 後陰으로 나오

니 그 후에 다시 調攝하면 거의 완전히 治愈할 수 있을 것이다. 鄙見이 이와 같으니 밝은 눈으로 질정해 주시오.

不寐怔忡의 症狀은 思慮驚恐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니, 驚氣는 傷胆하고 恐氣은 傷腎하며 五志가 不伸하면 반드시 痰을 生하고 飮을 聚하여 氣가 阻閉된다. 下法을 쓰면 膽氣가 不潔하게되고 胆寒肝熱하게되어 熱이 胃에 升한즉 心胸懊憹하고 물을 마시면 조금은 便安하되 반드시 湧吐하고 淸涎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앞의 方藥을 모두 열람하면 모두 調脾養心하는 方劑로 效力을 얻지 못하였으니 모두 膽胃 二經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驚悸가 胃脘心下에 있고 脈에서도 兩關에 弦强한 느낌이 손끝에 촉지되는데 어찌 명확한 證이 아니겠는가. 書에 이르기를 "水가 心下에 머물러 있으면 心悸하고 또한 胃가 不和하면 누워도 不安하다."하니 經의 가르침과 바로 合한다. 苓朮半夏湯으로 그 陰陽을 和하고 猪膽汁으로 足少陽을 先導하여 事情을 잘 이해하면 이익이 있게된다.

不寐는 失眠이라고 이르기도 하며 睡眠이 減少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主要한 原因은 情志因素에서 찾을 수 있으며, 大綱의 病機는 다음과 같다. 心脾兩虛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로 思慮太過하여 傷心脾한 것이니 이로부터 心血虧虛함으로서 神不守舍하게되어 不寐에 이르는 것과, 久病으로 腎陰耗傷하고 心腎不交하여 心火獨亢함으로서 失眠에 이르는 것이 있다. 또한 心膽虛怯으로 易驚善恐함으로서 驚恐을 만나게 되면 失眠狀態에 빠지는 것이 있고, 古人은 胃不和則臥不安이라 하여 食滯不消함으로서 不寐에 이르는 例도 설명하고 있다[15].

3.16. 馬培之 醫案

<厥逆>

@ 原文 : 恙由驚恐起見. 驚則氣亂. 傷乎心也. 恐則氣下. 傷乎腎也. 心膽氣偏. 痰涎沃乎心包. 神志昏亂. 寤不成寐. 或歌或笑. 或泣或悲. 飮食倍于曩昔. 陽明痰火有餘. 成爲癲症. 擬用瀉心溫膽法.

思勞抑鬱. 心脾受虧. 木鬱不達. 氣化爲火. 心君被擾. 恍惚不寧. 言語不經. 精神疲憊. 四肢驚惕. 慮成癲痫之疾. 急爲養榮. 開暢心脾. 以舒木鬱.

脈沉細弦急. 思慮過度. 心肝鬱而不達. 氣化爲火. 神思恍惚. 志意不樂. 不能自如. 臥不成寐. 將成癲疾. 擬養陰淸氣解鬱. 以甯神志.

思慮過度. 心脾受虧. 木鬱不達. 氣化爲火. 中土受其剋制. 以致胸腹作脹. 食少無味. 心胸煩悶. 恍惚不安. 神志不靈. 語言欲出忽縮. 慮成癲疾. 宜養心脾. 舒木鬱.

@ 解說 : 근심으로 말미암아 驚恐이 일어나면, 驚한즉 氣亂하고 心을 傷하게되며 恐한즉 氣下하고 腎을 傷하게 된다. 心膽氣가 치우치게되면 痰涎이 心包에 스며들게되어 神志昏亂 寤不成寐 或歌或笑 或泣或悲 飮食倍于曩昔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陽明痰火가 有餘하여 癲症을 이루게된 것이다. 瀉心溫膽의 치료법을 사용한다. 驚은 膽之志이며 그의 病理表現은 氣亂함으로서 나타나게되고, 恐은 腎之志이며 病理表現은 氣下를 통해 나타난다[6]. 心은 藏神하며 心膽은 相通하므로 氣亂하게 되면 神無所歸하여 痰迷心竅함으로서 癲의 症狀이 發現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思勞抑鬱하면 心脾受虧하여 木鬱不達함으로서 氣化爲火하게된다. 心의 君火가 어지럽게 되어 恍惚不寧 言語不經 精神疲憊 四肢驚惕의 증상이 나타나니, 생각해보건대 이것은 癲癎의 질환을 이룬 것이다. 急히 養榮하고 開暢心脾함으로서 木鬱을 풀어주어야 한다.

脈이 沉細弦急하고 思慮過度하게되면 心肝鬱而不達하여 氣化爲火한다. 神思恍惚 志意不樂不能自如 臥不成寐의 증상이 나타나니 장차 癲疾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養陰淸氣解鬱의 치료법을 씀으로서 神志를 편안하게 해준다.

思慮過度하면 心脾受虧하여 木鬱不達하고 氣化爲火하게된다. 中土가 그 剋制를 받음으로서 胸腹作脹 食少無味 心胸煩悶 恍惚不安 神志不靈 語言欲出忽縮의 증상에 이르게되니, 생각해보건대 癲疾을 이룬 것이다. 마땅히 養心脾하여 木鬱을 풀어준다.

위의 例는 思慮過度와 心脾受虧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을 설명한 것으로, 心은 血을 주관하고 神을 갈무리하며, 脾는 血을 統攝하고 氣血生化의 근원이 된다. 心과 脾의 관계는 血의 生成과 運行 및 神志活動面으로 표현되고, 心의 活動은 脾의 氣血生化에 物質的인 기초를 두고 있다[21]. 思慮過度하고 抑鬱되면 脾의 活動과 肝의 疏泄作用이 失調됨으로서 위와 같은 증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鬱症>

@ 原文 : 鬱之一症. 共有六條. 氣血痰火濕食也. 脈象虛弦. 左細. 右關浮弦滑疾. 鬱損心脾. 肝胃不清. 痰氣阻滯於中. 胸脘不舒. 飮食入胃. 則氣閉神昏. 牙緊肢冷. 背兪作脹. 呑酸作吐. 脾陽不升. 濁痰上蒙淸竅. 左目紅絲. 瞳神縮小. 視物不明. 胃濁不降. 大便艱難. 目眶靑黑. 痰滯於脾. 經來腹痛. 木鬱不達. 擬和暢肝脾. 化痰舒鬱.

脈象沉弦且細. 沉者鬱也. 弦爲氣滯. 細爲血衰. 心脾鬱而不遂. 氣恆於中. 脘中迷悶不暢. 不嗜米穀. 只餐麵食. 麥爲心穀. 米爲脾穀. 子虛求助於母也. 穀食不食. 則形神日羸. 擬養心調脾. 以甦胃氣.

心脾鬱而不遂. 氣化爲火. 浮越於上. 以致頭面烘熱. 欠寐. 心神不安. 下部怯冷. 擬養心脾以舒鬱.

脈象沉細而弦. 兩尺下垂. 腎水自虧. 心脾鬱而不遂. 氣血偏阻. 左偏頭汗. 胸腹不舒. 精神困乏. 欠寐耳鳴. 當養心脾以舒鬱.

@ 解說 : 鬱의 증상은 모두 六條가 있는데 氣血痰火濕食이 그것이다. 脈象이 虛弦하고 左脈은 細하며 右關脈은 浮弦滑疾하게 나타나면, 鬱損心脾하여 肝胃不淸하게되니 痰氣가 阻滯於中함으로서 胸脘不舒하고 飮食入胃한즉 氣閉神昏 牙緊肢冷 背兪作脹 呑酸作吐의 증상이 나타난다. 脾陽不升하면 濁痰上蒙淸竅하여 左目紅絲 瞳神縮小 視物不明의 증상이 나타나고, 胃濁不降하면 大便艱難 目眶靑黑의 증상이 나타나며, 痰滯於脾하면 經來腹痛이 나타난다. 모두 木鬱不達하여 발생되는 것이니 和暢肝脾 化痰舒鬱의 치료법을 사용한다.

脈象이 沉弦且細하게 나타날 때, 沉者는 鬱한 것이고 弦은 氣滯가 된 것이며 細脈은 血衰하여 나타나는 脈이다. 心脾가 鬱而不遂하면 氣恆於中하여 脘中迷悶不暢함으로서 米穀을 좋아하지 않고 다만 麵食만 먹을 뿐이다. 麥은 心穀이고 米는 脾穀이니 子虛하면 그 母로부터 도움을 求하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穀食을 먹지 않으니 形神이 점차 야위어간다. 養心調脾의 치료법을 사용함으로서 胃氣를 소생시켜야 한다.

心脾가 鬱而不遂하면 氣化爲火하여 浮越於上함으로서 頭面烘熱 欠寐 心神不安 下部怯冷의 증상에 이르게 된다. 헤아려보건대 養心脾함으로서 舒鬱을 시켜야 한다.

脈象이 沉細而弦하고 兩尺이 下垂한 脈은 腎水自虧하고 心脾鬱而不遂한 것이니, 氣血이 偏阻되어 左偏頭汗 胸腹不舒 精神困乏 欠寐耳鳴의 증상이 나타난다. 마땅히 養心脾함으로서 舒鬱시키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鬱이란 鬱結되어 滯而不通하는 것으로, 主要病機는 肝氣鬱結, 氣鬱化火, 痰氣鬱結, 氣滯血瘀, 心脾兩虛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위의 例는 心脾兩虛에 의한 鬱證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心은 主血脈하고 脾는 後天之本으로 氣血化生之源이 된다. 心脾虧虛하여 氣血化生이 不足해지면 心神失養한 즉 神思恍惚 善悲欲哭 등의 精神現象이 나타나고[15], 이를 鬱證으로 표현한 것 같다.

<不寐>

@ 原文 : 恙由驚恐而起. 旋卽不寐. 心胸熱辣. 咽溢氣痺呃逆. 甚至昏厥. 經云. 驚者. 心與肝胃病也. 心氣强. 則觸之不動. 心氣虛. 故觸之易驚. 肝屬木屬風. 風木震動. 故病熱驚駭. 胃爲多氣多血之經. 胃氣壅則生熱. 故惡人與火. 聞聲則驚. 心主藏神. 驚則神舍空. 陽明痰熱內居心包. 神不歸舍. 故見症若是. 擬養心和胃平肝. 以安神志.

素是濕體. 肺氣不利. 鼻塞不聞有年. 今春膂下動氣上振於心. 臥不成寐. 脈細左關弦硬. 舌苔滿白. 肝腎不足. 陽明濕痰不淸. 痰結於中. 淸陽之氣不能上升. 擬用溫膽湯加味主之.

復診. 不寐之證. 有十數條. 靈樞云. 以陽氣不得入於陰之氣. 故目不瞑. 腹有動氣. 下及心胸. 臥不成寐. 肝腎陰虧於下. 胃陽擾動於中. 面有油紅. 陰不斂陽. 水火不能交濟. 擬培肝腎. 以攝衝任.

三診, 脈象細而緩. 沉候帶弦. 緩乃脾之本脈. 土虛生濕. 沉候弦者. 陰傷肝不和也. 脾處中州. 爲化生氣血之藏. 脾虛不能佈精於胃. 子令母虛. 神不歸舍. 澈夜不寐. 始進和胃. 繼交心腎. 均未得效. 擬從心脾進治.

右寸脈虛. 是氣之不足. 兩尺沉細. 命腎皆虧. 兩關小而帶滑. 肝脾兩經夾有濕邪. 欲小解大便亦隨之而下. 有時氣墜於囊. 精凝成粒. 此氣虛夾濕. 腎元不固. 虛陽上浮. 頭目昏暈. 臥不成寐. 擬益氣固陰. 以斂浮陽.

憂思抑鬱. 最損心脾. 心主藏神. 脾司志意. 二經俱病. 五

內俱違. 心爲君主之官. 脾乃後天之本. 精因神怯以內陷. 神因精傷而無依. 以故神擾意亂. 竟夕無寐. 故多患驚悸怔忡之病.

@ 解說 : 근심걱정으로 말미암아 驚恐이 일어나면 不寐 心胸熱煩 咽澁氣痺呃逆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昏厥하기도 한다. 經에 이르기를, 驚者는 心과 肝胃의 病이라고 하였다. 心氣가 强하면 觸之不動하고 心氣가 虛하면 觸之易驚한다. 肝은 屬木屬風하니 風木이 震動하면 그런 연유로 病熱驚駭가 나타난다. 胃는 多氣多血之經이니 胃氣壅한즉 生熱하는 까닭에 惡人與火하고 聞聲則驚하게된다. 心主藏神이니 驚하게되면 神舍空하고, 陽明痰熱이 內居心包하면 神不歸舍하는 까닭에 앞에 보이는 증상과 같은 것이 나타난다. 헤아려보건대 養心和胃平肝함으로서 神志를 안정되게 해주어야 한다.

본디 濕이 많은 체질인데 肺氣不利하여 鼻塞不聞한지 일년이 넘었다. 그런데 올 봄에 臍下動氣가 上振於心하여 臥不成寐하고, 脈細左關弦硬 舌苔滿白하게 나타나니 이는 肝腎不足과 陽明濕痰이 不淸한 것으로 痰結於中하여 淸陽之氣가 不能上升한 때문이다. 헤아려보건대 溫膽湯加味를 主로 사용한다.

不寐의 證은 十數條가 있는데, 靈樞에 이르기를 陽氣不得入於陰之氣하는 까닭에 目不瞑 腹有動氣 下及心胸 臥不成寐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肝腎陰虧於下하고 胃陽擾動於中하면 面有油紅하니 陰不斂陽하고 水火不能交濟한 때문이다. 헤아려보건대 培肝腎함으로서 衝任脈을 굳게 지키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脈象이 細而緩하고 沉候帶弦하다면, 緩脈은 脾의 本脈으로 土虛生濕한 것이고 沉候弦者는 陰傷肝不和한 脈이다. 脾는 中州에 위치하여 化生氣血之藏이 되니 脾虛로 不能佈精於胃하면 子로 인해 母가 虛해져 神不歸舍하고 澈夜不寐한다. 치료는 和胃로부터 시작되어 계속해서 交心腎토록 하여야 되는데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헤아려보건대 心脾를 함께 치료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右寸脈이 虛한 것은 바로 氣의 不足을 뜻한다. 兩尺脈이 沉細하면 命門과 腎水가 모두 虧한 것이다. 兩關脈이 小而帶滑하면 肝脾兩經夾有濕邪하여 소변을 보고자 하면 대변 역시 함께 下하게되고 때때로 精囊의 氣가 떨어져 精凝成粒하니 이것은 氣虛夾濕한 것이다. 腎元不固하면 虛陽上浮하여 頭目昏暈 臥不成寐의 증상이 나타난다. 헤아려보건대 益氣固陰함으로서 浮陽된 것을 收斂하여야 한다.

憂思抑鬱하면 最損心脾한다. 心主藏神하고 脾司志意하므로 二經이 모두 병들면 이에 五臟이 모두다 이치에 어긋나게되니, 心은 君主之官이고 脾는 後天之本이기 때문이다. 精은 神怯으로 인해 內陷하고 神은 精傷으로 인해 의탁할 곳이 없어지니 이런 까닭에 神擾意亂하고 竟夕無寐하게된다. 故로 많은 사람들이 驚悸怔忡의 病을 앓게되는 것이다.

不寐의 症狀은 크게 肝鬱化火, 痰熱內擾, 心脾兩虛, 陰虛火旺, 心膽虛怯으로 辨證할 수 있다. 肝鬱化火는 忿怒傷肝으로 肝火가 盛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痰熱內擾는 肝火가 津液을 燒灼해서 발생하는 痰에 의한 것이며, 心脾兩虛는 思慮太過로 心脾受損 神氣失養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陰虛火旺은 肝火偏旺으로 腎陰不足해져 心腎不交가 원인이 된 것이며, 心膽虛怯은 素體虛弱한 사람이 突受驚恐한 때문에 발생하는 不寐症을 말하는 것이다[15].

3.17. 曹滄洲 醫案

<頭痛>

@ 原文 : 曹 肝陽濕痰上升. 頭痛久不癒. 胸悶塞. 時時作泛. 脈濡, 宜通陽洩濁疎鎭.

吳 風熱上襲. 右偏頭痛. 左上下齒均痛. 脈左部弦數. 治以平肝熄風.

@ 解說 : 肝陽濕痰이 上升하면 頭痛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胸悶塞하고 時時作泛한다. 脈濡하면 마땅히 通陽洩濁疎鎭의 치료법을 사용한다.

風熱上襲하면 右偏頭痛과 左上下齒均痛이 나타나며 脈이 左部弦數하면 平肝熄風의 치법을 쓴다.

<諸鬱>

@ 原文 : 居 鬱勃日久. 五志氣火上升. 胃氣逆則脘悶不饑. 肝陽上潛. 風火凌竅. 必旋暈. 咽痺自覺冷者. 非眞寒也. 皆氣痺不通之象. 病能篇以諸禁鼓慄屬火. 丹溪謂上升之氣. 從肝膽相火. 非無據也.

常 驚惶忿怒. 都主肝陽上冒. 血沸氣滯. 瘀濁宜宣通. 以就下因. 悞投止塞. 舊瘀不青. 新血又瘀絡中. 匝月屢屢反復. 竟肝膽氣血皆鬱. 仍宜條達宣揚.

童 因抑鬱悲泣. 致肝陽內動. 陽氣變化火風. 有形有聲. 貫鬲冲咽. 自覺冷者. 非眞寒也. 內經以五志過極皆火. 但非六氣外來. 芩連之屬. 不能制伏. 固當柔緩以濡之. 合乎肝爲剛臟. 濟之以柔. 亦和法也.

@ 解說 : 鬱勃日久하면 五志氣火가 上升하여 胃氣가 逆한즉 脘悶不饑하고, 肝陽上潛하여 風火가 凌竅하면 필히 旋暈하고 咽痺하고 冷함을 自覺하는 것은 眞寒이 아니라 모든 氣가 痺하여 不通하는 象이다. 諸禁鼓慄하는 病은 火에 屬한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丹溪가 이르기를 上升之氣는 肝膽相火를 좇는다고 한 것이 바로 그 근거이다. 鬱은 鬱結되어 滯而不通하는 것을 말한다[6].

驚惶忿怒는 모두 肝陽上冒에 의하여 주관되는 바이니 血沸氣滯하고 瘀濁한 것은 마땅히 宣通하고 아래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된다. 잘못 투약해서 막히는데 머물게 되면 舊瘀는 푸른색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新血로 된 瘀血이 絡中에 있는 것이다. 몇 달 동안 계속 반복되면 끝내 肝膽氣血이 모두 鬱하여 된 것이니 이에 마땅히 條達宣揚해야 한다.

抑鬱悲泣으로 因해 肝陽內動에 이르게 되면 陽氣가 火風으로 變化하게되고, 有形有聲 貫鬲冲咽 自覺冷의 증상이 나타나게되나 眞寒의 증상은 아니다. 內經에 五志過極은 모두 化火한다고 하였으나 단 六氣外來에 의한 것이 아니면 黃芩 黃連의 약으로 능히 제압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마땅히 柔緩以濡之의 치료법을 써야하는데 모든 이론을 합해보면 肝은 剛臟이 되니 柔의 방법으로 치료한다. 이 역시 和法이다.

3.18. 丁甘仁 醫案

丁澤周는 淸末에서 民國時期에 걸친 醫家로 字는 甘仁이다. 일찍이 上海等地에서 上海中醫專門學校, 女子中醫專門學校, 廣益中醫院을 創立하여 中醫의 發展에 상당한 促進作用을 하였다. 그의 著述로는 藥性輯要, 脈學輯要, 丁甘仁醫案 등이 있으며, 喉科에 대해서도 硏究하여 喉痧症治極要의 著書가 있다.

<神志>

@ 原文 : 腎陰不足. 心肝之火有餘. 此離坎不交之象也. 痰熱蒙蔽淸竅. 神不守舍. 舍空而痰熱据之. 痰火上炎. 故徹夜不寐. 痰蒙心則多疑. 時聞申申之詈. 脈弦滑帶數. 治宜益腎陰. 淸心火. 助入安神滌痰之品.

肝藏魂. 心藏神. 腎藏精. 肝虛則魂不安甯. 心虛則神無所依. 腎虛則封藏失職. 以致驚悸惕息. 悲若有亡. 遺洩頻頻. 心腎之陰不足. 君相之火有餘也. 盜汗甚多. 汗爲心液. 虛陽迫津液而外泄也. 脈象軟弱. 右尺虛數. 肝與膽爲表裏. 腎與肝爲乙癸. 三陰旣虛. 君相內動. 欲潛其陽. 必滋其陰. 王太僕云. 壯水之主. 以制陽光. 當擬三才合六味珍珠母丸加減. 滋腎陰以柔肝木. 淸君相而安神志. 俾得陰平陽秘. 水升火降. 則諸恙可愈.

心者君主之官. 神明出焉. 腎者作强之官. 伎巧出焉. 心榮與腎水交虧. 神機不靈. 作强無權. 不能動作. 不能思想. 心悸跳躍. 右耳鳴鳴. 兩目羞明. 腰痛疲腿. 健忘膽怯. 舌質光. 苔尖白. 中後黃膩. 脈象弦小而滑. 痰熱乘勢內生. 弦乃肝旺. 小屬腎虛. 滑則有痰之明證. 經云. 主不明則十二官危. 心病則一身皆病矣. 脈症參合. 或則成損. 或則爲癲. 欲求速愈. 靜養調攝. 當居其半. 草木扶助. 尙在其次. 姑宜複方圖治. 養心陰. 益腎水. 柔肝木. 化痰熱. 參以調和脾胃之品. 水足則木得涵養. 脾健則痰熱自化.

@ 解說 : 腎陰이 不足하고 心肝의 火가 有餘한 것은 離坎不交의 象이다. 痰熱蒙蔽淸竅하면 神不守舍하여 舍空而痰熱据之하게되고 痰火가 上炎하는 고로 徹夜不寐의 증상이 나타나며 痰蒙心한즉 의심이 많게되고 때때로 거듭 자신을 꾸짖는 듯한 소리를 듣게되며 脈은 弦滑帶數하게 나타난다. 치료는 마땅히 益腎陰 淸心火의 방법을 쓰고 安神滌痰의 약품을 더해 도움을 주도록 한다. 心腎不交로 痰火擾心하여 神志不寧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肝藏魂하고 心藏神하며 腎藏精한다. 肝虛한즉 魂不安甯하고 心虛한즉 神無所依하며 腎虛한즉 封藏失職한다. 이로써 驚悸惕息 悲若有亡 遺洩頻頻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는 心腎의 陰不足으로 君相之火가 有餘한 때문이다. 盜汗甚多의 증상이 있게되면 汗은 心液이 되므로 虛陽이 津液을 궁핍하도록 다그쳐 外泄하기 때문이고 脈象은 軟弱하면서 右尺脈은 虛數하게 나타난다. 肝과 膽은

表裏의 관계이고 腎과 肝은 乙癸의 관계로 三陰이 이미 虛해지면 君相內動하게 되니 그 陽을 가라앉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滋其陰하여야 할 것이다. 王太僕이 이르기를, 壯水之主는 以制陽光하여야하니 마땅히 六味珍珠母丸加減을 세 재 투여하여 滋腎陰함으로서 柔肝木하고 淸君相함으로서 安神志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陰平陽秘의 치료법을 취하면 水升火降한즉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이다.

心은 君主之官으로 神明出焉한다. 腎은 作强之官으로 伎巧出焉한다. 心榮與腎水交虧하면 神機不靈하고 作强無權하여 不能動作 不能思想 心悸跳躍 右耳鬁鳴 兩目羞明 腰痛痠脹 健忘膽怯 舌質光 苔尖白 中後黃膩의 증상이 나타난다. 脈象이 弦小而滑한 것은 痰熱乘勢內生한 것이니 弦脈은 肝旺한 것이고 小脈은 腎虛에 속하는 것이며 滑脈은 有痰한 증거임이 분명하다. 經에 이르기를 主不明한즉 十二官이 危하다 하였으니 心病이 있게된즉 전신에 모두 병이 있게 된다. 脈症參合하면 或則成損하기도 하고 或則爲癲하기도 하니 求하고자 한다면 빨리 치료하여야 한다. 靜養調攝하는 것이 마땅히 그 치료의 半이 되고 草木의 扶助는 그 다음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마땅히 複方으로 치료를 도모하여야 한다. 養心陰하고 益腎水하며 柔肝木하여야 한다. 化痰熱한 것은 調和脾胃의 약품으로 치료한다. 水가 足한즉 木得涵養하고 脾가 健한즉 痰熱自化한다.

이상 淸 時代의 醫案을 살펴보았는데, 淸代의 醫案은 몇 가지 점에 있어 前時代와 다른 특징이 있었다. 먼저 淸 以前 時代의 醫案은 각 時代에 있어 같은 主題의 疾病을 論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脈象 뿐 만 아니라 거의 모든 辨證 및 治療方法의 相異함을 살펴볼 수 있었음에 반해, 淸代의 醫案은 거의 비슷한 理論體系를 적용시켜 疾病을 分析하고 있었다. 이는 淸代 醫案이 비교적 前時代에 비해 縱的인 時間偏差가 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淸代 以前 時代의 醫案이 脈을 中心으로 辨證을 진행시켜나간 것에 대해, 淸代 醫案은 臟腑 相互間의 機能失調에서 辨證의 중심을 찾았다는 것과 비교적 자세하게 疾病의 轉變過程을 설명하고 있었다. 疾病發生의 要因에 있어서도 溫病의 要因을 간과하지 않고 서술하고 있었으며, 單獨 要因보다는 兼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되었다. 그 중에서도 心과 脾, 心과 腎, 心과 膽, 心과 肝의 문제가 주요 病機로 많이 제시되었다고 생각된다. 精神治療 部分에서도 淸代 以前 時代의 醫案은 驚者平之療法을 비롯한 몇 가지 精神治療法이 언급되었으나, 淸代의 醫案은 모든 부분에 있어 臟腑失調를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疾病을 分析하고 治法을 결정하는 臨床에서의 實踐力은 淸代 醫案이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었다.

이상 神經精神科 疾患과 관련된 醫案의 硏究를 같은 地域空間과 縱的인 時間의 變化란 틀 안에서 살펴보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반드시 발전이라는 측면만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점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Ⅲ. 結 論

이상 中國 淸 時代 醫案 중 神經精神科 疾患과 關聯된 醫案을 硏究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臟腑間의 機能失調가 疾病 發生의 要因이 됨을 알 수 있다.

2. 溫病이 發病因子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前時代의 精神治療法이 淸代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4. 邪祟는 西洋醫學의 解離障碍 중 憑依障碍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5. 頭痛의 發生部位에 따른 原因治療를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臟躁는 西洋醫學의 身體刑 障碍 중 轉換障碍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7. 如狂은 類似狂症으로 身體疾患이 原因이 되는 症狀精

神病임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222, 1985.
2. 洪元植 :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298, p.306, p.309, 1984.
3. 權保亨, 具炳壽 : 神經精神科 疾患과 關聯된 醫案의 研究(中國 宋·金元·明 時代 醫案을 中心으로),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8(1):215-235, 1997.
4. 姚若琴 外 : 宋元明淸名醫類案(2,3,4 卷), 上海, 上海書店, 1988.
5. 한국한의학연구소 기초이론연구실 : 한의진단명과 진단요건의 표준화 연구(1), 1994.12 - 1995.9.
6. 黃義完 外 :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p.55, p.100, p.102, p.106, p.351, p.355, p.401, p.403, p.510-511, pp.525-526, p.608, pp.613-614, p.665, p.667, p.669, 1987.
8. 申佶求 : 申氏本草學(總論, 各論), 서울, 壽文社, p.55, p.728, 1988.
7. 민성길 외 : 최신정신의학, 서울, 一潮閣, p.191, pp. 267-270, p.279, p.285, 1998.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동의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까치, p.1129, 1990.
10. 張明淮 外 : 心-腦-神志病辨證論治, 黑龍江城,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p.49, p.71, 1988.
11. 何裕民 : 中國傳統精神病理學, 上海, 上海科學普及出版社, p.121, pp.155-157, 1995.
12. 金現濟 外 :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p.448, pp.475-476, 1983.
13. 이광우 외 역 : 임상신경학, 서울, 고려의학, pp.117-118, 1997.
14. 呂光榮 外 : 中醫腦病證治, 台北, 台北南天書局, p.45, pp.117-119, 1989.
15. 張伯華 外 : 中醫心理學, 北京, 科學出版社, p.131, pp. 140-143, pp.145-147, pp.150-152, 1995.
16. 金庚植 : 東醫臨床指鍼, 서울, 大星文化社, p. 4, 1998.
17. 王克勤 : 中醫神主學說,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34, pp.45-46, 1988.
18. 任應秋 編 :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3, 1986.
19. 李丙允 : 精神醫學辭典, 서울, 一潮閣, p.515, 1990.
21. 朴贊國 : 臟象學, 서울, 成輔社, p.208, 1992.
22. 醫學敎育硏修院 : 家庭醫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828, 1991.
23. 김동일 외 : 東醫學辭典, 서울, 까치출판사, 1990.
24. 金相孝 : 東醫神經精神科學, 서울, 杏林出版, 1989.
25. 金完熙 外 :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0.
26. 武進謝 : 中國醫學大辭典, 臺北, 商務印書館, 1982.
27. 李尙仁 : 本草學, 서울, 修書院, 1981.
28. 李尙仁 外 : 方劑學, 서울, 永林社, 1990.
29. 李定均 : 精神醫學, 서울, 一潮閣, 1987.
30. 張機 : 金匱要略方論(欽定四庫全書 卷二)
31. 張三植 : 大字源, 서울, 三省出版社, 1991.
32.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 한의학대사전, 서울, 도서출판정담, p.748, p.1227, 1998.
33. 黃度淵 : 證脈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85.